

2013년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일시 | 2013.6.15(토)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후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목 차

□ 축사	2
□ 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소개	5
□ 전체 일정표	7
□ 참가 동아리 명단	8
□ 활동 보고서	11
I. 중학교	11
1. 대전둔산중학교(신사의품격)	11
2. 탄벌중학교(FAS)	19
II. 고등학교	27
1.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독도리)	27
2. 광영여자고등학교(대한민국홍보부)	35
3. 광주서석고등학교(역지사지)	43
4. 군산여자고등학교(온고지신1팀)	51
5. 남성여자고등학교(누리보듬)	57
6. 대덕고등학교(萬古不朽젓가락)	65
7. 민족사관고등학교(YICARUS)	73
8. 안계고등학교(다물)	81
9. 울곡고등학교(예터밟기)	89
10. 인천남동고등학교(배세토)	95
11. 창원봉림고등학교(사모해)	103
12.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역사사랑)	111
13. 휘문고등학교(아르스 노바)	117
□ 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예선 참가 동아리 명단	127
□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131
□ 메모장	133

축 사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들의 역사체험 발표대회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동북아지역의 역사문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나아가 역사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동아리 활동도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175개의 역사동아리가 참가를 신청하고, 이들 중 142개 역사동아리가 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결과물의 완성도와 활동의 내용이 다양해져서 그 어느때보다 예선 심사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체험 활동의 성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전국의 역사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국을 넘어서 세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특히 21세기 ‘평화의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역사적 교류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의 공유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도 전국에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소년과 역사동아리들이 역사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역사체험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는 살아 있는 역사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 참여한 각 학교의 동아리 학생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역사체험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기량을 마음껏 뽐내어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후원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가 더욱 발전하여 명실 공히 청소년을 위한 역사대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5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소개

□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청소년의 역사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를 추진함.
- 추진 경과
 - 1회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6.12.20,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2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7.9.15, 한국관광공사 대강당)
 - 3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8.10.10-12, 올림픽파크텔 등)
 - 4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9.6.13~14, 서울유스호스텔 등)
 - 5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10.6.12~13,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11.6.11,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7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12.6.16,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 세부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3.6.15(토) 12:00~19:00,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김학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안양욱)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서남수)
- 참가대상 : 전국 중·고교(청소년) 역사동아리 또는 팀(3~5명)
- 발표 주제 : 동북아지역의 역사 관련 역사체험 활동 및 대안 모색
- 추진 일정
 - 역사동아리 참가 접수(4.1~4.15) : 전국 175개 동아리
 - 활동 결과물 접수(5.20~30) : 전국 142개 동아리
 - 예선 심사 및 결과 발표(5.31~6.10) : 15개 동아리(중:2개팀, 고:13개팀)
 - 본선(6.15)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일정표

시간	일정	세부 내용
11:30~12:00(30분)	참가 접수	일정 안내
	순서 추첨	동아리 대표 1인 추첨으로 순서 결정
12:00~12:15(15분)	개회식	경과 보고 및 본대회 심사 기준 안내
12:15~13:30(75분)	1부(5개팀 발표)	팀별 15분씩 발표
13:30~13:50(20분)	휴식	2부 발표 5개팀 대기실에서 대기
13:50~15:05(75분)	2부(5개팀 발표)	팀별 15분씩 발표
15:05~15:25(20분)	휴식	3부 발표 5개팀 대기실에서 대기
15:25~16:40(75분)	3부(5개팀 발표)	팀별 15분씩 발표
16:40~17:20(40분)	평가회	발표대회 참관기 등 참가자 자유 발언
17:20~17:50(30분)	심사 결과 발표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및 결과 발표
	폐회식	시상식 및 폐회식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참가 동아리

순번	지역	학교명	동아리명	인원	동아리원	지도 교사명	발표주제
1	대전	대전둔산 중학교	신사의 품격	3	박경미 최유진 신경진	최중립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대전둔산중 학생들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방법 모색
2	경기	탄벌 중학교	FAS	4	조나린 조하린 금의섭 이은비 구하운	송명숙	역사왜곡의 시작과 끝
3	충남	공주 금성여자 고등학교	독도리	5	이승연 양소영 이하은	민기순	내가 지키는 독도
4	서울	광영여자 고등학교	대한민국 홍보부	5	박나연 김수진 이다슬 김은지 김미선	유채영	나비가 되어 훨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연구 및 나비 기금 마련 활동
5	광주	광주서석 고등학교	역지사지	5	박상현 박호준 권순민 문형선 진지홍	정재윤	근로정신대 - 젊음과 바뀌진 99엔
6	전북	군산여자 고등학교	온고지신 1팀	5	이정민 김민주 변진경 문은혜 문지수	박재규	독도 VS 다케시마
7	부산	남성여자 고등학교	누리보듬	3	김연지 노경아 우수민	이근배	약탈된 문화재를 되돌아보다.
8	대전	대덕 고등학교	萬古不朽 젓가락	5	김예인 김희재 민혜원 오지윤 이맑은샘	윤세병	<물망초:FORGET ME NOT> -일본 교과서 왜곡, 진실을 밝히자-

순번	지역	학교명	동아리명	인원	동아리원	지도 교사명	발표주제
9	강원	민족사관 고등학교	YICARU S	5	정한솔 이석화 송용진 박민규 한승현	정상민	일본 반출 문화재 조사와 홍보 -오구라 컬렉션과 서릉부 도서를 중심으로-
10	경북	안계 고등학교	다물	5	김승유 류경우 박동현 박현지 손민지	진영실	지켜주세요, 우리의 독도!
11	경기	율곡고등 학교	에터밋기	3	유의성 인성수 권오은	백석원, 구종형	If 독도
12	인천	인천남동 고등학교	배세토	4	정승훈 손성광 송지영 김광개토	김홍환	동북아 평화는? 우리 학교에서부터!
13	경남	창원봉림 고등학교	사모해	5	김기연 최은지 황보길 김진홍 박연정	오도화	일본군 '위안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14	충북	충주 예성여자 고등학교	역사사랑	4	이지혜 전해라 권예솔 김다미	이순아	충주(중원)고구려비를 통한 동북공정 알리기 프로젝트
15	서울	휘문 고등학교	아르스 노바	5	김동주 김민혁 김재영 김재훈 김정재	김 효	쿠릴열도, 조어도 사례 연구를 통한 독도문제 해결방안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대전둔산중 학생들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방법 모색

접수번호	130
동아리명	신사의 품격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 우리의 첫 만남

2013년 3월 9일, 박경미, 신경진, 최유진 이렇게 우리 셋은 토요일 방과 후 역사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다. 그 날, 평소에 우리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안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 동아리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겠냐는 제안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신사의 품격, 그 첫 발에 내딛게 되었다.

- 동아리명에 얽힌 에피소드

우연한 기회에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청소년 역사 체험 발표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대회 참여를 결심한 우리는 대회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고민해야 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동북공정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백두산 정계비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주제들이 예전부터 이슈화되고 있던 역사 문제이고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

고심 끝에 우리가 고른 주제는 바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

평소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우리가 보고서를 쓰고 조사하며 좀 더 많이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신사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왜곡 되어진 신사의 의미를 바로 잡고, 품격 있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아리 이름을 ‘신사의 품격’이라 정하였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박 경 미	여	3	체험 과정 총괄 및 설문 조사 준비
2	신 경 진	여	3	자료 조사 및 보고서 작성
3	최 유 진	여	3	동영상 제작 및 편집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둔산중 학생들의 인식 및 바른 인식을 위한 방법 모색

- 주제 선정 이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TV나 인터넷 등에서 자주 접하긴 했지만, 아직 학교에서 역사(상)까지만 배우다 보니 다소 낯설긴 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발표를 하면 자료를 찾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우리 체험활동의 주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평소 역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도 잘 모르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은 알까?’ 라는 의문을 갖고 둔산중 친구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만약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려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주제에 흥미가 생겼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 3. 20. ~ 2013. 5. 30.

○ 추진 방법 :

단계	내 용
1 단계	인터넷 및 신문을 통한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문제점 파악
2 단계	1단계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전 둔산중 학생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 조사
3 단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자료 정리 및 탐구 활동
4 단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바른 역사 인식을 알려줄 수 있는 동영상 제작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3. 3. 20.	주제 및 활동 방향 결정	학교 교무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대주제 결정,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역사 문제를 알리는 방식의 활동 방향 결정
3. 23.	세부 일정 수립, 1차 자료 조사	갈마도서관	자료 조사 및 정리, 시나리오 준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까지의 세부 일정 수립. 도서관을 방문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도서 목록 정리

4. 4.	자료 정리 및 설문 조사 계획 수립	학교 도서관	도서를 읽고 중요한 자료를 발췌 및 정리, 설문 조사 장소, 대상, 조사 시기 등 설문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4. 11.	설문지 작성	학교 도서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 작성
4. 16.	설문 실시	각 층 로비	설문 계획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 실시
4. 20.	설문 결과 분석	갈마도서관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 및 지식 파악
4. 25.	2차 자료 조사	학교 도서관	도서를 읽고 중요한 자료를 발췌 및 정리
5. 2.	3차 자료 조사	학교 도서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유용한 자료 발췌 및 정리
5. 9.	조사 정리, 촬영 일정 계획	학교 도서관	도서 및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 촬영 세부 일정 계획
5. 11.	시나리오 준비	갈마도서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시나리오 제작
5. 16. ~17.	동영상 촬영	학교 전체	동영상에 쓰일 영상 촬영
5. 18.	동영상 편집, 검토 및 보완	학교 컴퓨터실	영상 편집 및 완성된 동영상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5. 21.	동영상 발표	2학년 교실	동영상을 상영하고 친구들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토론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설문 피켓	그림 파일	대전둔산중 학생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아는 지 설문
2	조사 포트폴리오	일반 문서	그동안 조사한 기사 및 자료들을 모아놓은 자료
3	영상 제작 과정	일반 문서	야스쿠니 신사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을 위한 의도, 구성, 시나리오
4	동영상	동영상	학교폭력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연결지어 제작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1 단계

-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여러 역사적 문제를 놓고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관련 기사는 포트폴리오 참조)
- 관련 기사를 조사하다 보니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한 여러 역사 문제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
(관련 기사는 포트폴리오 참조)
 -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인식의 부족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게 됨

• 2 단계

- 대전둔산중학생들의 역사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
(설문 조사 내용은 피켓 사진을 참조)
 - ☞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보니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기사에 나온 사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대전둔산중 학생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기로 함

• 3 단계

- 조사한 자료 목록

-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고야스노부쿠니 지음/ 산해)
- 역사 속의 한일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지음)
- 한일 교류의 역사 (한국 역사 편찬 위원회 지음/ 혜안)
-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 사상 (김현구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다카하시데쓰야 지음/ 역사비평사)
- 세계를 속인 거짓말_문명과 전쟁 편 (이종호 지음/ 쓰인돌)
- 동아시아속의 한일 관계사 (고려대학교 일본사 연구회 지음/ 제이엔씨)
- 야스쿠니 신사의 정치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 센터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이해
-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점 분석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파악
-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반응 조사
(위의 내용들은 포트폴리오 참조)
 - ☞ 위 내용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심각한 역사 문제임을 깨달았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변의 친구들부터라도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하기로 함

• 4 단계

- 대전둔산중 학생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알려줄 동영상을 제작

- 완성된 동영상 시청 이후 토론

(동영상은 제출한 동영상 참조)

☞ 완성된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이 시청한 후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만약 이처럼 동영상을 제작해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면 대전둔산중학교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크게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향후 계획

-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촬영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한 친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는데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어” 라고 말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친구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바뀌어 갔는데, 설문 조사를 하는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점차 이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좀 더 많이 알기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이를 통해 동영상 제작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동영상을 제작하여 역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박 경 미	처음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였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역사 문제를 알릴 수 있고 나의 역사 지식을 쏟아나가는 이 과정이 참 즐겁고 좋았다.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이다 보니 궁금해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걸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게 무척이나 뿌듯했다. 앞으로도 야스쿠니 신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신 경 진	<p>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신사의 품격’ 친구들과 함께 자료 조사, 설문 조사,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 주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여러 역사적인 이슈들을 조사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우리 동아리원 모두가 재미있게 활동하여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역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p>
최 유 진	<p>야스쿠니 신사는 정말 생소한 주제였다. 그 생소함이 우리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이기도 할 만큼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나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내가 제작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친구들이 무척이나 흥미로워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역사에 관한 문제들을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5. 건의사항

조사를 하다보니 많은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대전둔산중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평소 역사 수업 시간에도 이 같이 우리들이 재미있어할 동영상을 보여주면 친구들도 역사를 쉽게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신사의 품격의 바램이다. 보다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역사를 재미있게 알린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왜곡의 시작과 끝

접수번호	94
동아리명	FAS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FAS는 'Flamma Algida Sum'의 약자로 라틴어로 '나는 뜨거운 불꽃이다'라는 뜻으로 "이성은 냉정하게 활동은 열정적이게"하자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 FAS는 경제, 시사,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서로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매주 2회(화요일, 토요일)에 걸쳐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대외적 체험활동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신장하며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아 함께 나아가는 동아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왜곡 및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영토 다툼의 현장에 있는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역사 알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앎을 공유하기 등 주변부터 그리고 세계로 하나하나 다가서려 합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조나린	女	中2	총기획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문항 제작 및 통계·분석
				UCC 제작
2	조하린	女	中2	결과 보고서 정리
				전시회 기획 및 전시회물 제작
				자료수집 및 분석
				UCC자료 편집
3	금의섭	男	中1	촬영
				자료수집 및 분석
				전시회물 제작
				설문문항 제작 및 통계·분석
4	이은비	女	中1	UCC자료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전시회물 제작
				UCC 제작
				활동 기록 작성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역사 왜곡의 시작과 끝

- 주제 선정 이유 : 2002년 시작되어 2007년 동북공정은 표면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한쪽으로 편향된 중국의 연구결과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을 작년 역사대회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AS는 동북공정과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 2013년 3월 18일 ~ 2013년 5월 28일

○ 추진 방법 : 설문조사, 판넬 제작, 전시회 개최(1차 교내, 2차 시립도서관), UCC제작

1. 사전자료 조사

동북공정과 관련된 도서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찾아 봄

2. 설문조사

- 1) 방 식: 설문조사 (탄별중학교 1,2,3학년 380명 참여)
- 2) 목 적: 동북아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수치화한다.
- 3) 산출물: 설문조사 보고서


3.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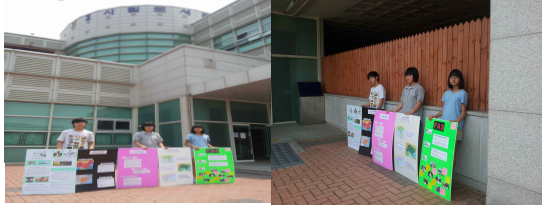
- 1) 방 식: 동북공정 알리기 판넬 제작 및 전시(교내 및 광주시 시립도서관)
- 2) 목 적: 다수에게 동북공정에 대해 알림 및 흥미유발
- 3) 산출물: JPG파일

4. UCC제작

- 1) 방 식: 동북공정에 대한 UCC를 제작하여 교내 방송, 학교 홈페이지 게재
- 2) 목 적: 교내 학생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해 적극적 알리기
- 3) 산출물: UCC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3/18~4/1	동아리 조직 및 역사체험활동 주제 선정	본교 2-2반교실	FAS(Flamma Algida Sum) 1기 조직 및 역사 체험 활동 주제 선정
4/1~4/9	동아리원들 역할 분담 및 역사체험활동 계획 수립	본교 2-2반교실	1.동아리 부원 역할분담 2.역사체험활동 계획 수립 3.일주일에 2번 모임 (화:16시30분~18시, 토: 자유모임)
4/16~4/23	동북공정 자료조사	본교 2-2반교실, 시립도서관	1. 동북공정 기초 자료조사 2. 설문조사지 질의 사항 연구
5/2~5/4	설문조사지 제작 교내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분석	본교 2-2반 교실	1.교내 설문조사지 제작(5/2) 2.동북공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심에 대한 설문 조사를 탄벌중학교 전교생(380명)을 대상으로 실시(5/3~5/4)
5/7~5/10	동북공정 알리기 자료 조사 및 정리	본교 2-2반교실, 시립도서관	설문조사 토대로 동북공정 알리기 자료 조사 및 정리
5/14~5/18	동북공정 UCC제작	본교 2-2반교실, 자택	조사 자료로 UCC 제작
5/19~5/20	전시회 기획	본교 2-2반교실, 시립도서관	동북공정 전시회 기획안 작성
5/21	UCC 방송	교내	UCC 교내 방송
5/21~5/23	홍보 판넬 제작	본교 2-2반교실, 자택	자료 정리 및 편집 후 홍보 판넬 제작
5/24	전시회 개최(1)	본교 내	 <p>본교 2층 중앙 통로에 동북공정 전시회를 개최</p>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25	전시회 개최(2)	광주시립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 입구에서 동북공정 전시회 개최
5/25~5/28	보고서 정리	본교 2-2반교실, 자택	역사체험발표대회 참가 소감문 작성 결과보고서 마무리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결과보고서	HWP	동아리 소개, 역사체험 활동 소개,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기록, 성과 및 향후 계획
2	동북공정 설문 조사 보고서	HWP	교내 동북공정 설문조사 보고서
3	중국의 역사왜곡 시작과 끝 UCC 1	AVI	동북공정 의미,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제작
4	동북공정 전시회 판넬자료	JPG	동북공정, 동북공정에 관한 韓과 中의 입장 등을 전시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청소년들의 동북공정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내 학생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동북공정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동북공정에 대해 알고도 관심 없는 청소년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교 학생,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동북공정 관련 내용이 담긴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동북공정 관련 우리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 및 시민에게 알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개인의 역사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 알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앎을 공유하기.

또한, 주변인으로부터 세계로부터 다가가면서 다각도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동아리원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

6월 초 광주시 시립도서관에서 2차 전시회를 통해 시민에게 동북공정에 대해 알리기 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FAS 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알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을 발판으로 저희 FAS 는 역사 알리기를 대표하는 동아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 탐구 및 해결방안 모색 및 실천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역사·경제·시사의 중심이 되어 꾸준히 노력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조나린	동북공정에 대해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었으며, 우리 국민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8회 동북아 역사발표대회를 빌어 저 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해 알릴 수 있어 뜻 깊은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해서 모두 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하며 3개월 가까이 힘을 합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진 FAS 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하린	동북공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얼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동북공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북공정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동북공정의 위험성과 그것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알리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금의섭	이번 기회에 동북공정 체험활동을 하면서 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렵듯이 중국이 고구려 역사 바꾸는건가? 하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역사를 왜곡해 고구려 발해 등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에 있는 55개 소수민족들의 분열을 방지해 중국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조사를 하며 중국의 억측에 우리나라가 조금 미약하게 반응한

	<p>것 같다. 또, 학생들 대부분이 동북공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설문조사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니 모든 국민에게 동북공정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동북공정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부터라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p>
이은비	<p>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처음 이 대회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고 별로 흥미도 없었습니다. ‘아’ 이런 대회가 있으니 그냥 자료 조사하고 프린트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회를 열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이 대회를 연 목적을 지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북공정의 현재진행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면서 이미 동북공정은 진행이 끝났는데 우리의 대응은 늦었고 미약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p> <p>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한 목소리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p>

5. 건의사항

짧은 시간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 좌충우돌함이 많았습니다. 지도교사님이 많이 인솔을 하여 주셨지만, 기획에 대한 교육 및 UCC 제작 등 홍보물 제작 교육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내가 지키는 독도

접수번호	5
동아리명	독도리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우리 동아리는 독도에 관한 관심과 영유권 논쟁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어 청소년으로서 독도를 지키고 싶은 작은 애국심을 품고 뜻을 같이한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의 초기 활동 방향은 홍보보다는 자료수집과 자료의 영문번역으로 해외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책자를 보내주는 등 조사 연구와 영문 홍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아리를 창단 하고 부터 증거자료와 영문 번역은 이미 수준이상으로 많이 구비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작 부족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라는 논거가 대중들에게 닿는 연결고리와 국민들 속에 내재된 독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원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우리의 능력으로 교내를 시작으로 공주지역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자료화, 시각화 하고 독도에 관한 지식들을 쉽게 알려주어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하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방향으로 취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구하윤	여	고2	단장, 활동기획, 카페관리
2	조수민	여	고2	카페활동
3	양소영	여	고2	사진촬영, 카페활동, 홍보
4	이승연	여	고2	영어통역, 카페활동
5	이하은	여	고2	홍보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독도

- 주제 선정 이유 : 일본의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 대하여 교과서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교육의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봄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 즉 내 나라 내 땅 지키기를 실천하고 독도수호를 이루기 위한 학생홍보활동을 한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년 3월 10일~5월 27일

○ 추진 방법 :

토요일 마다 동아리 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여 동아리의 방향을 더 구체화 시켜갔다.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는 자습시간을 이용해 동아리 원들과 실행에 옮겼다. 예를 들어 회의를 통해 축제 때 부스를 열기로 했다면 축제 2주 전 아침에 어떤 재료를 사야 할지 정한 다음 저녁에 재료를 사고 당일 자습1,2교시에 1-1반 교실에서 제작을 한다. 또한 회의에서 어떤 장소에 홍보를 하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으면 단장은 관공서에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는다. 전날 단원들에게 참가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고 참가 인원을 확인한 후 정규 수업 이외의 자유타임을 이용하여 홍보를 한다. 카페 관리 단장의 주도아래 개인별로 날짜를 정해주어 해당 날짜에 3개의 글을 포스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포스팅 하는 글의 종류로는 독도관련 기사를 스크랩 독도에 관련된 조사르 한 결과물들을 올렸다. 또한 일상에서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린일,책갈피를 제작한 도안등의 홍보결과를 올렸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3년 3.19~	다음 '독도리'카페 운영	인터넷	본 동아리의 주요 활동임. 독도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부분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자료조사를 한 결과를 올림.또한 동아리의 회의내용,홍보일정등 정황을 알리는 장이기도 함.네티즌들이 독도에 관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였음. 111개의 게시물 수가 있음
2013년 5.10	외국인 교사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를 설명함.	충남 외국어 교육 연수원	충남 외국어 교육 연수원에서 원어민들을 상대로 독도를 홍보하였다. 동아시아 사를 전공한 외국인에게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소개해주고 영유권 분쟁에 대한 설명도 하였으며 독도에 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알림. 영어를 사용하여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홍보함에 의의를 둔다.
2013년 4.19	대전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과 귀빈들에게 독도 응원메세	대전 시청 대강당	독도 응원 메세지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이번 대전시청대강당에

	지를 받아옴		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약 5천 명의 장애. 비장애인들이 참여한 행사였는데 이곳에서 염홍철 대전시장님, 남선기공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분들의 독도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2013년 5.15	교내 축제 때 부스를 만듦	금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	교내 축제에서 '독도야 놀자'라는 부스를 만듦. 독도관련 퀴즈와 추첨을 통한 상품을 증정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하였고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독도의 인식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도 얼핏 알고 있었던 독도와 더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3년 3.01~5.14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 플래시몹을 계획함	금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체육대회 날과 교내 한복입는날(4.12)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 플래시몹을 기획하였다. 무용 선생님의 도움으로 1.2학년 전교생이 무용 시간에 독도 플래시몹을 배우게 되었고 큰 행사에서 독도 플래시몹을 하여 몸과 마음으로 독도에 대한 열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다음 '독도리'카페	한글	조원들이 스크랩한 독도의 기사와 사진, 동영상.자료조사의 결과물과 홍보용으로 만든 책갈피 도안,피켓 등 동아리 활동 중 남긴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2	충남외국어교육연수원	한글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소개하고 함께 독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책을 읽어보며 독도에 관해 알아보았다.
3	장애인의 날 홍보	한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일반인과 염홍철 시장님, 남선 기공 회장님에게 응원메시지를 받았다.
4	교내 축제 때 독도 부스를 만듦	한글	조원들이 협동하여 축제부스를 만들었다. 축제당일 독도퀴즈를 내어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5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	동영상	한복입는 날과 학교 체육대회날 독도

	플래시몹		플래시몹을 기획하였다.
--	------	--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활동 이후의 홍보효과를 설명하기 이전에 동아리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홍보활동이나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껴 자주적으로 토론회나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홍보를 할 때도 처음에는 무척 수줍어하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독도를 알리려고 하는 진심이 느껴진다.

학교를 대표하는 독도 동아리로서 교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활동하는 것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았다. 축제에서 부스를 개설했을 때 기대 이상의 인원이 퀴즈에 참여하며 즐거워하였고, 독도에 관련된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독도에 대해 알고, 독도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독도에 관한 정보나 독도를 홍보하는 기사를 보면 친구들이 동아리 원들에게 알려주고 카페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독도리 카페는 동아리원 뿐만이 아닌 전교생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교내에 영자신문과 아하뉴스 기사에 본 동아리의 활동들이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도 동아리에 대해 인식하고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 향후 계획

처음 만든 동아리인 만큼 서툴렀지만 그 만큼 열정이 컸다.

앞으로는 이번 해에 만들어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홍보기관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도 동아리의 입지가 더 커지면 학교의 지원을 받아 부스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동아리의 정착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리 원들의 열정이다. 주요 활동이 홍보이다 보니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동아리 원들의 열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내년 신입생 모집 때에는 간단한 면접과 성실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동아리원과 함께하는 토론학습을 하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를 절감했다.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이 독도에 관해 궁금해 할만한 사실과 역사적 지식을 습득한다. 외국인 홍보를 할 때 독도의 영유권 근거들은 설명하였지만 외국인의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는 정작 얼버무린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독도에 관한 영상과 자료를 돌아가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구하윤	<p>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동아리를 시작했다. 처음 회의를 하였을 때에 조원들은 진지하게 독도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말했고 나는 조원들과 어떤 활동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원들에게 확실한 목표의식을 주고 열심히 활동해보자는 의의에서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카페에 글을 올리고 홍보활동을 하는 큰 일은 아니지만 무척 신경 쓰이는 일을 모두가 열심히 해주었고 단장으로써 고맙고 책임감이 막중하게 들었다. 특히 외국어교육연수원을 다녀와서 독도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녀온 조원들도 독도리 활동의 의의를 진심으로 느꼈다고 하였다. 축제부스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의외로 독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관심과 독도를 지키고 싶어 하는 작은 마음들을 모은다면 또 그것을 세계에 알린다면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알리는 의미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p>
이승연	<p>평소에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독도에 대한 안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혼자 화나서 씩씩대곤 했었다.</p> <p>그때는 무작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안좋아 했는데 독도리에서 활동하고 나서는 제법 독도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주저리 주저리 논거도 들어가며 말 할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스 활동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 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몇몇은 독도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한국 내에서는 독도 독도 하지만 몇몇 이웃 나라에만 가도 독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나 한명만 노력해서는 효과가 많이 없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외국사람들에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을 듣고 싶다.</p>
양소영	<p>난 독도라면 항상 열을 냈다. 그만큼 내 자신이 독도를 사랑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도라는 말만 들으면 일본을 맹비난했지만 정작 나는 독도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 외국인에게 독도를 흥</p>

	<p>보하러 갔을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 외국인에게 독도를 홍보할때 난 아무 말도 못했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게 하려고 동아리에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막상 용기도 없었다. 이래가지고는 일본에게 먹히지도 않은 공격만 하게될것만 같았다. 독도에 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내가 그런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결코 이견 자량이 아니다. 정말 창피한것이다. 그래서 난 독도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기로 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공격만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아리활동을 통해 방어 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걸 깨달게 해준 '독도리'에게 난 고마움을 느끼고 나름 독도에 관해서 공부중이다</p>
<p>조수민</p>	<p>처음 '독도리' 라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살아야 겠다 하는 의미에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동안 '독도' 라는 우리나라의 한 영토에 대해 관심을 끄고 살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방학 때, 독도 캠프를 하면서 '나는 그 동안 말로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아무런 물증도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심증으로만,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독도를 우리 땅이라 생각해 왔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이 동아리에 임해야겠다 하며 카페 활동과 동아리 활동, 부스 활동 등을 해 왔다. 그 동안 독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며 신문의 자료들을 스크랩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살펴 보며 내가 그간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깨달았다. 카페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독도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아보고 하며 이제는 누군가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땅이냐" 하고 물을 때 한 두가지 정도의 증거를 내세우며 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며 독도에 대한 정보를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친구들, 더 나아가 이 카페의 게시글을 보게 될 네티즌들에게 전하고 싶다.</p>
<p>이하은</p>	<p>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역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독도리라는 동아리에 들었다. 카페에 독도 관련 내용을 올릴 때 꿈인 경찰과 관련한 기사들을 위주로 올리도록 했다. 동아리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스활동도 하였다. 부스활동에는 많이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다. 외국어 교육 연수원에 방문해서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해 홍보하였다. 외국어 교육원에서 활동하고 놀라웠던 점은 그곳에 있는 외국인 분들은 우리가 독도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독도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독도에 대</p>

해 무지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과연 독도의 존재를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해야 겠다고 생각도 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방문 전 독도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말로만 독도리였지 실제 내가 그만큼 독도 관련 지식인이 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관한 지식과 자료들을 더 찾아보고 누가 독도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5. 건의사항

나비가 되어 훨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연구 및 나비 기금 마련 활동

접수번호	28
동아리명	대한민국 홍보부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본 동아리는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의 사제동행 역사체험 프로젝트에 답사 주제가 선정되어 개항장 제물포라는 주제로 인천 답사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좋아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2,3학년들이 모여 조직되었고, 현재는 1,2,3학년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주제는 지역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답사하고 공부하여 학교 축제에서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소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독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 자극 받아 독도에 관해 공부를 하였고, 여름 방학 답사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관해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매 해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답사와 독서활동을 한 후 축제 및 학교 게시판을 활용해 공부한 내용을 교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회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홍보의 기회를 찾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대표 홍보부가 되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홍보부'라는 동아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박나연	여	3	팀장, 세미나 주관, 회의 의견 정리, 나비 뱃지 홍보물제작, 나비 뱃지 홍보 활동, 수요집회 피켓 제작
2	이다슬	여	3	나비 뱃지 포장에 넣을 설명서 제작, 나비 뱃지 홍보 활동, 답사 기획 및 자료집 제작
3	김미선	여	3	수요 집회 인원모집 및 통솔, 세미나 자료 수집 및 편집, 세미나 발표 용 ppt 제작 및 발표, 나비 뱃지 판매 가게 섭외
4	김수진	여	3	세미나 자료 수집 및 편집, 세미나 발표 용 ppt 제작 및 발표, 설문조사, 주제탐색발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축제 전시 총괄
5	김은지	여	3	세미나 자료 수집 및 편집, 세미나 발표 용 ppt 제작 및 발표, 사진 촬영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연구 및 나비 기금 마련 활동

- 주제 선정 이유 : 2013년 겨울 정기 답사의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집회(이하 수요집회)를 참가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수요집회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동아리 주제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 정하고 여성과 인권 박물관에 답사도 가고, 역사 왜곡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동아리 회원들만 아는 것보다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는 점을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 참가를 권유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학생들에게 홍보한 결과

7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집회도 참여하고 박물관 답사도 갔지만 더 깊이 있는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할머니들의 시위를 돕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나비가 되어 훨훨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연구 및 나비 기금 마련 활동’이라는 주제를 택하여 역사체험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를 모든 활동의 상징물로 삼아 제목을 ‘나비가 되어 훨훨’로 삼았고, 기금 마련 뱃지 도안을 나비로 정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역사분쟁의 가장 큰 쟁점이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지만, 실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활동을 통하여 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학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리고, 감정적인 분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 1. 1 - 2013. 5. 30

○ 추진 방법 :

- 1) 답사 활동 : 수요집회 참여, 답사자료집 제작
- 2) 학술 활동 : 세미나 활동 및 결과 발표
- 3) 홍보 활동 : 주제 탐색 발표 대회(설문조사), 축제 전시
- 4) 나비 기금 마련 활동 : 100만인 나비 뱃지 달기운동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1월 27일	수요 집회 2차 참여	동대문구 일본공사관 앞	-피켓 제작 (내용:Japan을 재판하라, 일본정부는 사과하라)
2월 27일	수요 집회 3차 참여	동대문구 일본공사관 앞	-위안부 문제 실태 및 수요 집회 참여 독려의 글을 기입한 유인물을 학교 곳곳에 부착하고 홍보 활동 -현수막 제작 (내용: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일본은 증거가 없다한다.) -피켓 제작 (내용: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70여명의 학생들과 집회에 참석 -할머니들을 지지하는 나비 핀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꽃게 함 -자유 발언을 신청하여 ‘할머니들께 드리는 편지’를 할머니들 앞에서 읽음 -2012년 축제 때 독도쿠키를 팔아 마련한 수익금을 정대협에 기부함

			
2월 25일	주제탐색발표 대회	학교	<p>-위안부 피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위안부를 비롯한 세계전쟁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p> <p>-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전쟁 속의 여성 폭력과 인식 수준과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교내 주제탐색 발표대회에 참가</p> 
4월 3일,10일,17일,24일,29일	세미나 및 발표	학교	<p>-각자 탐구 주제를 분담하여 연구</p> <p>-분담 주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례, 한국 정부의 대응책, 일본 정부의 극우 발언, 외신에서 나타난 반응-세미나를 토대로 동아리 1, 2학년 학생들 앞에서 발표</p> 
4월 25일~	100만인 나비 뱃지 달기 운동	학교 및 지역사회	<p>-동아리 회원 중심으로 나비도안 컨테스트</p> <p>-나비 뱃지를 제작, 나비 뱃지에 관한 의의를 설명한 설명문 작성, 포장</p> <p>-학교 축제를 통해 판매</p> <p>-반 마다 판매 포스터를 부착하여 축제이후에도 상설 판매</p> <p>-친한 지역 빵집 및 가게에 임시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p>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수요집회	ppt	집회 참여 독려 포스터, 피켓 사진, 집회 참여 보고 게시물
2	답사집	pdf	수요 집회에 참여한 활동 내용과 감상문
3	주제 탐색 발표 보고서	한글파일	‘전쟁 속의 여성 폭력과 인식 수준과 그에 대한 대책’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
4	세미나 발표	ppt	주제탐색발표대회 발표 사진 및 세미나 결과를 교내 1,2학년 동아리 회원들에게 발표한 자료
5	백만 인 나비뱃지 달기 운동	ppt	나비 뱃지의 도안, 포장, 판매, 피켓 , 나비 뱃지 설명서
6	축제 전시 활동	ppt	축제 전시물 및 판매 사진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우리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내 학생과 학교가 소속된 지역 사회의 관심 촉구였습니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인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수요 집회 참석을 권유하는 활동이 처음에는 매우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친구들의 말에, 활동에 대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수요 집회 참여가 동아리의 정기적인 활동이 되어 다음 수요 집회 참여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요 집회 3차 참가 때에는 2012년 학교 축제에서 독도쿠키를 판매하여 남긴 수익금을 정대협에 전달하였고, 할머니들께 드리는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아리 회원 모두 뿌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강서·양천지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뱃지를 삼으로써 그 판매 수익금은 정대협에 나비기금으로 기부되며, 뱃지를 달고 다님으로써 할머니들의 집회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만들어 뱃지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뱃지를 만들 때에는 안 팔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준비한 200개가 1시간 만에 다 팔리고, 더 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다시 200개를 주문하여 상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친한 가게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판매대를 만들어 설치했는데, 몇 분 사 가시는 것을 보

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취지에 공감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주제탐색발표대회 참가, 세미나, 동아리 발표를 통해 감정적인 분노에만 빠져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정확한 할머니 피해 사례와 국내 정책, 일본의 극우 발언에 관해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

100만인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의 100만인은 강서,양천 지역의 인구수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현재 400개를 판매했지만 계속 판매하여 100만인이 되는 그날 까지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고, 이 판매를 통해서 저희 지역 사회라도 수요집회에 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도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수요집회에 참여할 것이고, 8월 13일에는 뱃지 판매를 위해 거리 홍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나비기금(백만 개가 팔린다면 4억입니다.)은 연말에 정신대책협의회에 전달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전쟁과 여성 박물관이 활성화되는 데에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박나연	이번 역사체험 활동을 통해 사전에 위안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되었고, 체험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나비 뱃지를 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웠고, 사람들이 나비 뱃지를 많이 사고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아 우리의 영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가슴 벅찬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희망에 부흥하여 이 역사체험 활동이 끝이 나도 이런 활동은 계속 지속하고 나아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관심 가지고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다슬	가장 뜻 깊었던 활동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부족했던 친구들과 함께 수요 시위에 참석한 것입니다. 직접 친구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알리고 수요 시위 참여를 독려하여 100명가량을 모아 참석한 집회에서 정신대 대책 협의회 윤미향 대표님의 ‘학생들의 소중한 관심이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할머니들의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아 할머니의 상처 치유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매번 수요 집회에 동아리 친구들끼리 갔었는데, 이번엔 교내 3학년 친구들을 모아 함께 수요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7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 친구들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 기대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 때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을 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려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위안부’를 잘 모르는 듯 싶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문을 함께 주었지만 정작 나비 뱃지만 달고 설명문은 운동장에 쓰레기마냥 굴러다녔습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일본을 다그치려면 우선 우리가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현 정부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지원해주고 있

	<p>지만 무엇보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들 이 문제를 들어보기만 했지 해결하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원이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p>
김수진	<p>여러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백만인 나비 뱃지 달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공모하고 제작하였고, 포장까지 공들여서 한 나비 뱃지를 주민들이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안부 피해 사실을 많이 알린 것 같아서 뿌듯하였습니다. 지난 봄방학에 많은 학생들과 함께 간 수요 집회는 그 어떤 수요 집회보다 뜻 깊었습니다. ‘위안부’라는 딱딱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회의 현장에서 나비 핀을 머리에 꽂고 할머니들을 위해 소리치는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뉴스 스크랩을 진행 하면서 쪽 변해온 일본의 입장은 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주장은 반가웠습니다. 뉴스 스크랩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김은지	<p>처음에 위안부 해외자료 조사를 맡게 되었을 때 자료가 있을까?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상 외로 세계 사람들이 위안부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났고, 자국민 일본인조차도 일본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개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인 친구도 사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당당하게 정부에서 사과를 요구하라는 말을 듣고 싶고, 할머니들을 후원하고 한마음으로 도와주는 주체가 시민이 아니라 정부로 바뀌어 적극적으로 할머니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p>

5. 건의사항

본 활동은 저희 동아리가 기존에 하던 활동인데 다행히 본 대회 취지에 맞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활동의 경우 활동 자료를 잘 모아두지 못해 보고서를 쓰는 현재 1,2월 활동의 경우 사진이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 대회를 기회로 동북아 역사 현안에 대해 관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회 공고를 전해 12월이나 당해 1월에 한다면 더 정밀하게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 - 젊음과 바뀌진 99엔

접수번호	72
동아리명	역지사지(歷知史智)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동아리명 : 역지사지(歷知史智)

- 동아리명의 의미

1. 역사를 알고 이를 통해 지혜에 이른다는 의미
2. 상대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易地思之)

→ 우리가 아닌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자는 의미(歷知史智)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박호준	남	2	활동일정결정, 구성원 연락, 인터뷰 진행 및 내용정리, UCC제작
2	박상현	남	2	근로정신대 문제의 진행과정 정리 UCC 시나리오 작성, 전시물 제작
3	권순민	남	2	회의(토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체험활동 결과 정리, 전시물 제작
4	문형선	남	1	일본의 조선여성 동원문제 조사 PPT 작성, 전시물 제작
5	진지홍	남	1	근로정신대 배상문제의 쟁점 조사 체험활동 중 사진촬영, 전시물 제작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 모색

- 주제 선정 이유 : 오늘 날 일본은 점차 더욱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와 역사인식문제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인식문제는 단순히 개별사실에 대한 인식차이 뿐만 아니라, 일제가 자행했던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 및 정당화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도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태평양전쟁시기에 우리민족에 행했던 여러 문제들, 징병, 종군위안부, 징용, 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서석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역지사지(歷知史智)는 이 태평양전쟁시기 한국인에게 행해졌던 여러 문제 중 근로정신대 동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일제가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배경과 그것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리고 해방이후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근로정신대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일본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 3. 20 ~ 5. 29

○ 추진 방법 : 2013년의 역지사지(歷知史智)가 다시 정비된 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하는 제 8회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작년에 참가했던 제 7회 역사체험 발표대회를 분석하고 여러 제안되었던 주제 중 ‘근로정신대’ 문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체험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우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전원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공식카페(<http://cafe.daum.net/1945-815>)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각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무등산 입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요일 ‘근로정신대 집회’에 참가하고, 학교체육대회 기간을 이용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고, 이와 동시에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었던 분의 살아있는 증언을 듣기 위해 양금덕 할머니와의 만남을 갖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한편 학생들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실을 순회하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카페 홍보 및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UCC를 제작하여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duR_L8EN-mc)와 Daum(<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0316393>)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각자 주제를 나누어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자료집에 반영하였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3. 3. 20	제 1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제 8회 역사체험 발표대회 참가결정
2013. 3. 27	제 2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주제 선정 회의 진행 - 학생별 조사 주제발표 - ‘근로정신대 문제’를 주제로 선정
2013. 4. 3	제 3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역사체험 활동방안 논의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공식카페(http://cafe.daum.net/1945-815)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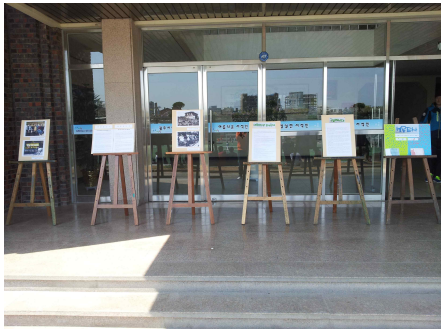
2013. 4. 10	제 4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근로정신대 문제 관련 조사 사항 배분 - 4월 14일 예정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집회' 참여 결정
2013. 4. 14	근로정신대 집회 참여	무등산 입구	- 오후 2시 ~ 4시, 2시간 동안 집회 참여 · 시민대상 홍보활동(서명운동 등) ·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와의 만남
2013. 4. 17	제 5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집회참가 결과 확인 및 소감 발표 -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 일정 결정 및 관련 조사 사항 배분
2013. 4. 22 ~ 2013. 4. 24	전시회 전시판넬 제작	광주서석고 3-A 교실	- 재료 구매 및 전시내용 수집 - 전시 판넬 제작(총 6매)
2013. 4. 25 ~ 2013. 4. 26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	광주서석고 중앙현관	- 근로정신대의 정의, 근로정신대에 대한 언론 보도, 사진 등 전시 -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이 전시 이전에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설문, 총 389명 응답, 몰랐다 209명 알고 있었다 180명 응답)
2013. 5. 1	제 6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전시회 결과 확인 -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와의 인터뷰 일정 및 방법 논의
2013. 5. 4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인터뷰	양금덕 할머니 자택	- 약 30분간 인터뷰 진행 - 동영상 촬영
2013. 5. 5	제 7차 회의 및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토의	광주서석고 학부모 회의실	- 체험활동 진행상황 확인 및 일정 논의 -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의견 발표
2013. 5. 8	제 8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자료집 제작 논의 (분야별 조사 진행상황 확인) - UCC 제작을 위한 자료 수합 및 시나리오 작성
2013. 5. 20 ~ 2013. 5. 23	교내 홍보활동	광주서석고 각 교실 및 현관	- 근로정신대 문제 알리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카페 홍보
2013. 5. 22	제 9차 회의	광주서석고 3-A 교실	- UCC시연 및 의견청취 - 자료집 제작을 위한 자료 수합
2013. 5. 24	UCC 인터넷 게시	광주서석고	- YouTube 게시 (https://www.youtube.com/watch?v=duR_L8EN-mc) - Daum 게시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0316393)



▲ 근로정신대 집회참여(4. 14)



▲ 근로정신대 전시회(4. 25)



▲ 근로정신대 전시회(4. 26)



▲ 양금덕 할머니 인터뷰(5. 4)



▲ 근로정신대 문제 토의(5. 5)



▲ 근로정신대 문제 홍보활동(5.20 ~ 23)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자료집	HWP	-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고찰 - 활동 소감문 - 활동 내용 정리
2	프리젠테이션 자료	PPT	-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요약 - 활동내용 정리
3	U C C	AVI, WMV	-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간단한 홍보
4	사진자료	PDF	- 활동사진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광주서석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역지사지(歷知史智)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다룬 이번 역사체험 활동에서 학생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힘으로 완료해 봄으로써 성취감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으며, 하나의 역사적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동아리 구성원들도 함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성원간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들을 직접 접하고 체험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역사의식 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 향후 계획

광주서석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역지사지(歷知史智)는 올해 역사체험 발표대회 뿐만 아니라 자체적 일일 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 및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역사체험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체험 발표대회를 계기로 가입하게 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활동을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해마다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박 호 준	동아리 단장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동아리 원들의 휴일도 많이 빼앗고, 각종 역할을 배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번 체험 활동을 하면서 또 근로정신대 문제를 조사하면서 느낀점은 나는 역사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였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번 계기를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박 상 현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하였다. 정리하면 우리는 무등산 입구에서 미쓰비시 제품불매 서명운동까지 하고 양금덕 할머니와 인터뷰, UCC 동영상 제작, 우리 광주서석고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근로정신대 자료 전시회와 설문조사 등... 언론매체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한 뉴스를 전하지만 근로정신대는 잘 언급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시위와 같은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여러 국민들에게 알리고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일본과 잘 협의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

권 순 민	<p>처음 근로정신대를 주제로 하고 동아리 부원들과 조사하기 전에 저는 근로정신대를 위안부와 비슷하다는 모호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아리에서 근로정신대 관련 전시회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주최한 미쓰비시 불매 서명 운동, 양금덕할머니 인터뷰, ucc제작을 통해서 개념이 모호하던 근로정신대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정신대에 관한 활동들을 하면서 서먹서먹하던 동아리 부원들하고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매우 유익했던 시간을 가져서 기쁩니다.</p>
문 형 선	<p>양금덕 할머니가 인터뷰를 끝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은 좋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해주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근로정신대 사람들을 기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시민들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일본에 대한 요구로써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로 이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p>
진 지 흥	<p>활동을 시작하기 전 솔직히 나도 처음 동아리 선배로부터 근로정신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근로정신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다만 위안부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활동을 하며 느낀 사항이 정말로 많은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그분들은 물론 위안부, 징용 피해자 분들 등 모든 일제 시대 피해자분 들의 아픔을 빨리 달래 드릴 수 있기를 강하게 바란다. 또한 일본도 하루빨리 그분들과, 또 한국에 사죄를 하고 화해하여 두 나라가 모두 행복해 지길 바란다.</p>

독도 VS 다케시마

접수번호	114
동아리명	온고지신 1팀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저희는 역사연구 동아리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은 ‘옛것에서 배워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다시는 그러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역사 학습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저희 동아리의 취지를 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아리명을 이와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이정민	여	2	계획하기
2	문지수	여	2	계획하기
3	김민주	여	2	기록하기
4	문은혜	여	1	사진찍기
5	변진경	여	1	정리하기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독도 vs 다케시마**

- 주제 선정 이유 : 지금까지 이어지는 독도에 대한 일본과의 분쟁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독도vs 다케시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불변의 진실을 가지고 분쟁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제 와서 비탄해 하는 것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현 상황의 독도문제를 보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진정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4월 6일 ~5월 26일

○ 추진 방법 :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밖에서 할 활동을 나누어 기간을 정해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설문조사 및 우익 제품에 대한 설명, 플래시몹 제작 등을 토대로 활동 하였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독도에 대한 캠페인을 열었으며 독도 연구소와 독도체험관에 들러 여러 가지 견학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04.06(토)	독도신문 만들기	개인	독도를 주제로 하여 가상인터뷰, 만평, 광고 등을 제작
04.26(금)	‘독도VS다케시마’ 수업 청강	교내 1-10 교실	전주대학교 j-h프로그램 중 학교방문강의 ‘독도vs다케시마’라는 주제로 홍성덕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의
04.29(월)	독도설문조사 실시	교내	교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독도인식 설문조사 실시
05.04(토)	독도전시회 견학	용인	용인 문화예술원에서 개최되는 독도전시회 견학
05.09(목)	독도 플래시몹	교내 강당	교내 체육대회 종목 중 에어로빅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주제로 하여 독도 플래시몹 촬영
05.13(월)	독도모형 만들기	교내 미술실	독도의 지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교내 미술실에서 독도 모형 제작
05.18(토)	동북아 역사재단 내독도연구소 및 체험관 견학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좀 더 심화적인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동북아 역사재단 방문. 곽진오 교수님께 독도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하에 있는 독도 체험관 견학
05.20(월)	우익제품에 관하여 자체 수업	교내	우익제품에 관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동아리에서 수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반 학생들에게 수업
05.25(토)	독도 캠페인 활동	전주 한옥마을	일반인들과 전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사실을 홍보하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실시함
05.26(일)	1인 1국가 1외국인 독도홍보활동	SNS	독도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알리는 독도 홍보활동 실시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독도 플래시몹	영상파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주제곡으로 하여 플래시몹 제작
2	독도vs다케시마 수업	hwp	교내 동아리시간에 실시한 '독도VS다케시마'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정리 및 소감문
	용인문화예술원 '독도전시회' 견학	hwp	독도 전시회 견학문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독도체험관 견학	hwp	독도연구소, 독도체험관 견학문
3	1인 1국가 1외국인 독도홍보활동	ppt	SNS를 통한 독도홍보활동
4	교내 독도 인식 설문조사	ppt	교내 독도인식 설문조사 통계
5	독도 모형 및 신문 만들기	ppt	독도 모형
6	독도 캠페인 활동	ppt	독도 관련 홍보내용 캠페인 실시
7	우익제품에 관하여 자체 수업	ppt	우익제품 수업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뜻이 맞는 친구들과 독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토론하며 우리의 땅인 독도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불가능 할 것 같았지만 짬을 내서 활동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은 것 같았으며 잠시나마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가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알아가는 것 뿐 만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 향후 계획

온고지신이라는 동아리는 역사연구 및 답사 동아리이며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재들을 답사 할 것이며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있는 역사 공부를 할 것입니다.또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캠페인과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이정민	작년에 이어 올해 똑같은 독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좀더 추진력 있게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수업들을 들으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들과 일본 땅이 아닌 이유들을 하나 둘씩 알게 되면서 독도를 사랑한다고 항상 자부하던 내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독도에 관한 많은 숨겨진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독도에 대해 더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문지수	이번 대회 준비를 하면서 살짝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무사하게 끝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대회 준비를 통해 많은 추억도 쌓고 좋은 기회도 너무 많았었다. 전주대 교수님의 독도 강의도 들을 수 있었고, 캠페인도 하고 재미있었다.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이런 것이 있다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김민주	독도를 주제로 한 캠페인 대회에 나가게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독도를 위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본의 독도 소유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은혜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항상 어려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직접 교수님을 만나고 얘기 하는 동안 독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독도 체험관을 갔다 왔는데, 독도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
변진경	온고지신이라는 군산여자고등학교의 역사 관련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독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참에 독도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기회로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독도는 '그냥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명백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정말 좋았고, 강의를 듣는 내내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독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독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우리 땅임을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5. 건의사항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일주일 중 5일은 학교에서 보내는 데 주말을 활용하여 준비하기에 빠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자료 준비시기를 방학시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약탈된 문화재를
되돌아보다.

접수번호	15
동아리명	누리보듬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누리보듬’은 순 우리말이며, 사전상의 뜻으로는 ‘온 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거라’입니다. 저희가 누리보듬이라고 동아리 이름을 지은 이유는 첫 번째, 외래어와 비속어가 난무하는 요즘 세상 속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깨달으며 순 우리말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록 언어는 다르더라도 같은 문화를 공유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온 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거라’ 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고난들과 역사를 보듬고 살아갈 때의 저희가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의 큰 용기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우수민	여	3	면담 계획 및 보고서 작성, 사진 촬영
2	노경아	여	3	설문지 제작 및 조사, 통계
3	김언지	여	3	포스터, 팸플릿 제작 및 ppt 디자인
4				
5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약탈된 문화재를 되돌아보다.


- 주제 선정 이유 : 동북아 역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료와 유물, 유적을 통하여 각국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동북아 3국이 현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갈등들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하고자 동북아 삼국간의 문화재를 알아가며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며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년 1월 14일 ~ 2013년 5월 29일


○ 추진 방법 :

1. 동아리 결성 및 주제 선정
2.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3. 전문가(교수님, 박물관 관장님)과의 면담 실시 및 보고서 작성
4. 학교 내 설문지 조사 실시 및 통계
5. 실외조사 실시
6.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 각 학급에 팸플릿 배부
7. 자료 총 정리 및 총 PPT 제작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3년 1월 14일	동아리 결성 및 주제 선정	본교 컴퓨터실	동아리 누리보듬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주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돌려 받자.' 선정함.
2013년 1월 15일~1월 25일	인터넷 조사 실시	각자 집, 본교 컴퓨터실	우리 문화재 중 일본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실시. 3가지 예시 선정 후 집중적인 조사.
2013년 1월 28일	토론회 및 향후 계획	본교 컴퓨터실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 실시. 이후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
2013년 1월 30일	동아대학교 홍순권 교수님과의 면담	동아대 홍순권 교수님의 연구실	준비해 간 질문을 통해 교수님과의 면담 실시. 총 1시간에 걸쳐 면담을 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주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됨. 
2013년 1월 30일	홍순권 교수님과의 면담 보고서 작성	본교 컴퓨터실	전날 실시한 면담에서 받아 적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 보고서 작성.

2013년 2월 3일	임시 수도 기념관 이현주 관장님과 면담	임시 수도 기념관 이현주 관장님 관장실	<p>미리 관장님께 보낸 질문을 토대로 면담을 실시함. 1시간에 걸쳐 면담 실시 후에 관장님과 같이 기념관 내부 관람함. 면담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문제점 또다시 발견.</p> 
2013년 2월 4일	부산대학교 김동철 교수님과 면담		<p>준비해간 질문을 통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면담을 실시. 문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눔. 주제를 수정해야한다고 느낌.</p> 
2013년 2월 5일	임시 수도 기념관 이현주 관장님과의 면담 보고서 작성	본교 컴퓨터실	관장님과의 면담 시에 받아 적어온 메모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면담 보고서 작성.
2013년 2월 6일	부산대학교 김동철 교수님과의 면담 보고서 작성	본교 컴퓨터실	교수님과 면담할 때 받아 적은 자료와 녹음 파일을 토대로하여 면담 보고서 제작.
2013년 2월 8일	주제변경	본교 컴퓨터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약탈된 문화재를 되돌아보다.'로 주제 변경. 무조건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반환받기 보다는 그 문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반환 가능 여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낌.
2013년 2월 18일~2월 22일	실내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본교 컴퓨터실	실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지 제작 및 200장과 여분 10여장 프린트.

2013년 2월 27일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각 학급	본교 학급 중 학년과 반을 선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2013년 2월 28일~3월 10일	통계 및 분석	본교 컴퓨터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통계 내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여부 등을 분석함.
2013년 3월 11일~16일	실외조사 준비	본교 컴퓨터실 및 개인 집	실외 조사를 위한 간단한 설문지 제작 및 필요 용품 구매
2013년 3월 23일	실외조사 실시	남포동	 <p>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남포동 거리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함.</p>
2013년 3월 24일~4월7일	홍보자료 제작	본교 컴퓨터실	홍보활동을 위한 포스터 및 팸플릿 제작
2013년 4월 8일~현재	홍보자료 게시	학교 게시판 및 각 학급	포스터는 학교 게시판에, 팸플릿은 각 학급에 배부하여 게시함.
2013년 5월 6일~현재	총정리 ppt 제작	본교 컴퓨터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총 정리하며 모두 한자리에 결합시켜 하나의 ppt로 제작함.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총정리 PPT	ppt	지금까지 실시한 활동을 총 정리하여 PPT로 제작
2	면담보고서	hwp	동아대 홍순권 교수님, 임시 수도 기념관 이현주 관장님, 부산대 김동철 교수님과의 면담 보고서
3	설문지원본	hwp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원본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교수님, 박물관 관장님들과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 설문지 및 야외 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홍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음.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끌어 일으키기 위하여 포스터, 팸플릿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고, 전보다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음.

○ 향후 계획

➢ 수시 혹은 정시 후에 동아리 부원들 다 함께 박물관 탐방을 다니며 문화재에 대한 깊은 대화를 할 것이다.

➢ 후배들에게 동아리를 잇게 하여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우수민	역사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역사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 역사를 전공할 사람으로서 나는 꽤 객관적으로 문화를 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내가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문화를 보는 나의 인식이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고 항상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면담을 통해서 우리와 상대방을 같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조사를 준비하면서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더 채찍질 하게 되었고, 역사를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열정도 더 커지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 것처럼 후배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역사체험 활동을 한 후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 체험 활동을 하면서 동북아 속에 한국을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노경아	역사체험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문화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하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분명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대학교 교수님들과 박물관 관장님과의 면담하는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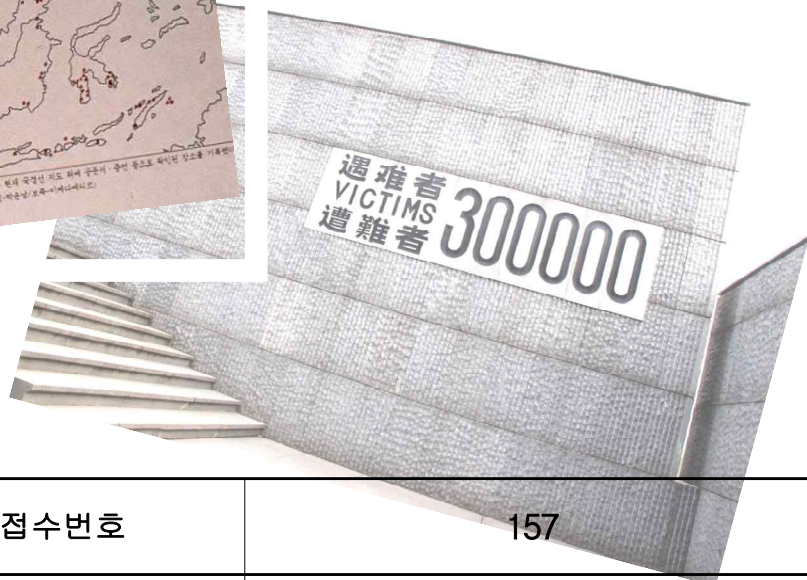
	<p>갖게 되어 내가 가지고 있던 국수주의적인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p> <p>세 분께서 공통적이게 말씀해 주신 것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재들을 상호보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외조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예전에 나 자신처럼 국수주의적인 시각으로 문화재를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를 안타깝게 했다. 나는 이번 활동이 단지 나의 스펙이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문화재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나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문화재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역사체험활동을 마친 후에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다시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p> <p>“문화재는 세계인 모두가 같이 지켜야하는 보물이다.”라는 것을.</p>
김언지	<p>이번 역사체험활동을 하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대 김동철 교수님께서 하신 ‘빼앗긴 문화재도 우리 역사의 일부이다.’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빼앗아간 것은 잘못된 거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그 때 왜 그래야한 했는지’와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시야와 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만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다 잃을 것만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많은 이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들이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만 같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모로 뜻 깊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5. 건의사항

※ 활동결과보고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8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물망초 : FORGET ME NOT>

-일본 교과서 왜곡, 진실을 밝히자-



접수번호	157
동아리명	만고불후(萬古不朽) 젓가락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 동아리명 : 만고불후(萬古不朽) 젓가락

- 동아리명의 의미 : 현재 나라간 역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역사를 곧게 인식하고 교육을 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변하거나 사라지지 아니함’이라는 뜻의 ‘만고불후’와 곧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한중일의 공통점이기도 한 젓가락을 합쳐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곧게 가르치려는 의미에서 동아리명을 만고불후 젓가락이라 하였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예인	女	2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보고서 작성
2	김희재	女	2	UCC 제작 및 편집
3	민혜원	女	2	보고서 작성, 피켓 만들기
4	오지윤	女	2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앙케이트 조사판 만들기
5	이맑은샘	女	2	UCC 제작 및 편집, 피켓 만들기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위안부, 난징대학살)

- 주제 선정 이유 :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 즉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고, 역사를 바로 앎으로써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그를 왜곡해 교육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제로 이를 선정하였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년 4월 13일 ~ 5월 29일

○ 추진 방법 : 일본 역사 교과서 반대서명운동, 부스체험, 위안부 대체 명칭 콘테스트, 연령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13	자료 수집	학교 및 집, 도서관	주제 관련 인터넷, 뉴스 검색 서적 찾아보기
5/11	부스체험	유성온천문화페스티 벌	반대서명운동, 역사(난징대학살&위안부)피켓 소개
5/11	반대서명운동 및 피켓	한밭수목원	반대서명운동, 역사(난징대학살&위안부)피켓 소개
5/12	교과서 박물관 견학	세종시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	교과서에 대한 이해 및 탐구와 관계자 인터뷰
5/21	도서 자료 분석 및 일본교과서 조사	동북아 역사 재단	일본, 중국 교과서 탐색 및 자료수집 동북아, 흥사단 연구원들과 토의
5/25~26	앙케이트 조사	대전무역전시관, 대전 새로남교회 앞	연령대별 일본 역사 왜곡 인식도 조사와 반대서명운동
5/29	위안부 대체 명칭 콘테스트	교내	위안부 대체 명칭 투표를 통한 인식도 조사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반대 서명 운동지	pdf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 서명 운동지
2	일본 교과서 복사본	pdf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한 올바른 일본 교과서
3	관련 인터뷰 script	hwp	활동 중 관련 인터뷰 내용 script
4	앙케이트 조사 결과	ppt	활동 중 연령별 조사 결과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1. 반대 서명 운동& 역사 피켓 소개

-> 현재(2013년 05월 27일)까지 약 789명의 서명을 받음. 역사 피켓 소개를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킴.

우리는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성온천문화페스티벌에서 부스활동을 하며 일본 교과서 왜곡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했고,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관련 피켓을 만들어 일본이 왜곡한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반대서명을 해주시며 한마디씩 응원과 격려를 해 주셨다. 그 외에도 우리는 ox퀴즈, 위안부 대체 명칭 콘테스트, 연령대별 앙케이트 조사 등을 준비했으나, 사전 연락 전달 문제와 책임자 분의 반대로 철수해야 했다. 책임자분께서는 페스티벌이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 방문자들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그대로 끝내기는 아쉬운 마음에 우리는 한발수목원으로 장소를 이동해 활동을 지속했다. 한발수목원에서는 유성온천문화 페스티벌에서 만큼의 호응도를 얻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한 결과 많이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반대서명운동은 그 이후로도 다른 활동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각 반을 돌며 반대서명을 받았었는데, 학생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서명운동지에 욕설, 음설패담을 적는 등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여 안타까웠다. 심지어는 ‘서명운동이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 없으니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교과서 박물관 견학

->교과서에 대한 이해, 관계자와 인터뷰

주제가 교과서 왜곡인 만큼, 교과서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교과서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 검정과정, 편찬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등이 궁금했다. 또한 일본 교과서 왜곡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우리는 박물관을 견학하며 교과서의 연대별 변천사와 특징들을 배운 뒤, 관계자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궁금했던 것들이 일부 해결되었다.

3. 동북아역사재단 방문

-> 내용을 사실대로 담고 있는 올바른 일본 교과서와 왜곡을 비판하는 일본 논문 내용을 발췌 후 해석 요약.

->동북역사재단 정치학박사와 홍사단 대표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

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일본교과서를 비교하고, 역사가 왜곡된 부분을 찾기 위해 학교 소풍을 중간에 빠지고 동북아 역사 재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부족한 외국어 실력으로 왜곡된 부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 고충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료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객진오 정치학 박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찾으려 했던 위안부와 난징대학살에 관한 교과서 지문을 찾아주시고 내용까지 해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분께 위안부와 일본의 전쟁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님도 만났는데 우리의 대화를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셔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고, 역사교과서왜곡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4. 연령대별 인식도 조사와 ‘위안부’ 대체 명칭 투표(자료첨부)

-> 연령대별 앙케이트 조사를 통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

-> ‘위안부’ 대체 명칭 투표를 통해 ‘위안부’란 명칭의 부적합성과 올바른 의미를 알림.

우리는 일반 시민들의 연령대별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하기 위해 동해표기문제, 생화학

전, 난징대학살로 주제를 나누어 대전무역전시관과 대전 새로남교회 주변과 버스정류장에서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스티커를 이용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무역전시관에서는 산림고용박람회를 주최중이어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흔쾌히 도와주셨다. 또 우리는 서구보건소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먼저 관심을 보이시며 다가오셔서 역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독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난징대학살과 일본 마루타 실험, 생화학전과 731부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여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식의 총 정리판 같아 매우 흥미로웠고 즐거웠다. 또한 우리 앙케이트 주제가 일본 교과서 왜곡인 것을 보시곤, '우리부터가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은 뒤에야 일본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며 군부 독재 시대의 이야기와 왜곡에 대해서도 들려주셨는데, 그 점은 우리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던 부분이라 더욱 깊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고 조사 결과 독도, 동해 표기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생화학전과 간도문제, 난징대학살 문제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셨지만 심도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극소수였다. 또, 모른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주로 어린 연령이 많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도 꽤 많아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위안부'를 대체할 명칭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본군 성노예, 위안(僞贗)부, 강제성징용녀, 물망초, LOST, MIF(Missing In Freedom)등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우리는 남녀반을 나누어 실시를 했는데, 여자 반의 경우 강제성징용녀라는 '위안부'의 강제적, 성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들어내는 명칭이 가장 많이 표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군 성노예와, 한자를 달리 써 의미를 바꾼 위안(僞贗)부가 많은 표를 받았다. 남자반은 성적인 의미를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일본군 성노예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5. UCC 제작

->여러자료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짐.

->SNS와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극적 역사와 왜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림.

우리는 UCC를 제작하기로 하여 틀은 금세 잡았었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정하기가 매우 막막했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콘티를 짰는데, 일단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고 나니 역할분담이 적절히 나뉘어져 바로 UCC를 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식채널e와 비슷한 틀의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한 동영상 하나와 활동 과정 동영상을 만들었다.

○ 향후 계획

-현재 일본 교과서 왜곡 반대 서명은 789명이 참여했고, 올 해 이전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일본 대사관에 보낼 탄원서에 첨부 예정.

-2~3달에 한 번씩 토론회를 열고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할 예정.

-배너 달기

-대중매체를 통한 역사 왜곡 문제 알림.

-기업의 지원 활성화 방법 고안.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 예인	<p>반대 서명 운동과 앙케이트 조사, 역사 피켓 활동을 할 때 나는 희노애락의 네 감정을 모두 느꼈던 것 같다.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먼저 다가와 주신 분들과 역사 피켓을 소개할 때 열심히 들어준 학생들에게는 기쁨을, 반대 서명 운동지에 생각 없는 글과 장난 섞인 욕설을 쓴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고는 슬픔을, 이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즐거움을 느꼈다. 나는 3년 전,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둘러본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 때문에 나는 난징대학살이라는 사건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대회 활동 주제 중 하나로 난징대학살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도 해결하고,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중국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난징대학살이라는 사건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영단체들이고, 정부의 지원도 적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계속 확장하며 발전시키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세계인을 불러올 만한 규모의 박물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 안타까운 역사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p>
김 희재	<p>대회에 참가하기 전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막연히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고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었지 자세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조사를 했고, 새로 알게 된 것도 많았다.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집중했던 주제는 ‘위안부’ 문제였는데, 대회 얼마 전 동아시아사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위안부’ 명칭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위안부’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쓰일 만한 마땅한 명칭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명칭 콘테스트를 제안하게 되었다. 그런데 적절한 대체 명칭을 생각해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리는 이번 콘테스트를 소규모로 진행했고, 우리가 대부분의 예시명칭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다. 하지만 만약 이 콘테스트를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멋진 대체명칭 아이디어들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다. 또, 나는 UCC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한 짧은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무척 보람있는 작업이었다. 영상 편집 경험이 많지 않아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 영상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으면 한다. 영상 제작을 위해 조사를 하던 중 굉장히 인상깊었던 것은 731부대의 마루타 생체실험 사건이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혐기적인 실험과 살인행각에 과연 이들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악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이 마루타 실험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이번에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활동했지만, 다음 활동으로 731부대의 생체실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민 혜원	<p>나는 이번 대회 참가에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소에는 조금의 관심 정도였던 생각이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싶을 정도로 관련 뉴</p>

	<p>스들이 나오면 바쁘더라도 꼭 챙겨보게 되었고,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 우리가 반대 서명 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수고한다, 이런 건 우리 어른들이 해야하는데.’ 하며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뿌듯했다. 하지만 활동 중에 기분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분들은 흔쾌히 응해주셨지만, 반대 서명 운동은 다니는 곳마다 눈초리가 곱지만은 않았고 바쁘다며 피하시는 분들, 잡상인 취급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활동의 한계점이 느껴졌다.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문제점은 ‘무관심’이었다.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무관심하다. 실상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하는 것은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건만, 그 자체가 귀찮은 것이다. 사실 나도 과거에는 이런 활동들에 조금 무관심했다.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몰랐고, 조금 귀찮기도 했다. 계기가 없다는 것도 변명거리 중 하나였다. 그래서 처음 활동을 할 때는 이 대회 이전의 늘 ‘조금의 관심’ 정도로만 끝이 났던 나의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활동이 계속 될수록 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흥미가 생겼고, 대회와는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진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대회를 통해 알게 된 과거의 비극들에 순수하게 분노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번 활동은 나에게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경험이 되었다.</p>
<p>오 지윤</p>	<p>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에 대해 배경지식이 부족해 다른 팀원들에 비해 한 발짝 뒤에 있는 것 같았다. 생각보다 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팀원 간의 화합도 중요했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많아 사람들에게 용기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우리가 유성온천문화페스티벌에 반대 서명 운동을 하러 갔었을 때, 주제가 조금 예민한 문제인 만큼 그곳의 담당자들은 물론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안부나 난징 대학살,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을 언급하는 것을 꺼려워 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 외면적인 태도가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바나나 우유까지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대회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다. 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 분들 중에서는 경험담이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나에게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p>
<p>이 맑은샘</p>	<p>국사시간에 무거운 눈꺼풀을 주체할 수 없는 이유는 학생들은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지도 않는 암기과목에 학생들이 무슨 흥미를 가지겠는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History is a tool.”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이는 “역사는 도구다.”라는 뜻으로, 역사를 그저 단순한 사실만이 아닌 그 바탕을 이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 역사 체험 대회를 통한 동아리 활동은 그 점을 충족시켜주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바로잡자는 것을 주제로 하여, 발로 뛰는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는 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우리가 발로 뛰어서 얻은 경험은 교실의 책을 통해서 얻은 수 없는 값진 지식과 경험이었다. 또한,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이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가장 충격적이</p>

었는데, 사람들은 한 사건이 터졌을 때 급격히 뜨거워지는 반면에, 평소에는 이런 일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심지어 빠르게 뜨거워진 냄비가 빠르게 식기도 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는 냄비근성을 버리고 지속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5. 건의사항

- 역사체험페스티벌 필요(부스활성화)
- 이과문과 구별없이 역사교육이 수업일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 활동결과보고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8페이지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일본 반출 문화재 조사와 홍보

-오구라 컬렉션과 서릉부 도서를 중심으로-

접수번호	26
동아리명	YICARUS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동아리명 YICARUS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을 향해 날아가던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를 기리는 동시에 Young Idealists' Critiques on Amoral Reality and Unreasonable Society의 줄임말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아리로 인문학과 사회학의 여러 주제를 탐구하며 최근에는 역사 관련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정한솔	남	11	총감독
2	박민규	남	11	캠페인, 포스터, 답사, 보고서
3	이석화	남	11	캠페인, 설문조사, 답사, 보고서
4	송용진	남	11	캠페인, 설문조사
5	한승현	남	10	캠페인, 포스터, 보고서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일본 반출 문화재에 관한 조사와 홍보 -오구라 컬렉션과 서릉부 문화재를 중심으로-

- 주제 선정 이유 : 동북아 역사 분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동시에 외면당한 주제가 문화재 환수 관련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활동 구성원 중 한 명(정한솔)은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의궤 전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문화적 얼굴이며 중요한 자산인데 대중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는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4.7.-2013.5.30

○ 추진 방법 : 학생들이 직접 계획을 짜고 실행했습니다. 답사, 캠페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월 20일 -5월 26일	일본 반출 문화재에 관한 설문조사와 교내 캠페인	학교, 서울 코엑스 등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한 대중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교내 캠페인을 벌임.
5월 4일	외부 캠페인	서울 코엑스	서울 코엑스에서 직접 만든 피켓과 설문지 등으로 일본 반출 문화재에 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
5월 18일	간송미술관 답사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을 방문해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간송 전형필 선생의 뜻을 기림.
5월 21일- 5월 28일	보고서 작성	학교	두 달 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원들이 모두 참여해 보고서를 작성함.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간송미술관 방문 감상문	hwp 파일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정신을 느끼고 기리기 위해 간송 미술관을 답사했습니다. 조상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2.	교내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 세 장	hwp 파일	교내에서도 설문조사와 포스터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위해 부원들이 제작한 포스터를 첨부합니다.
3	간송미술관 답사 사진	ppt 파일	간송 미술관 답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4	외부 캠페인 사진	ppt 파일	서울 코엑스에서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해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캠페인 사진을 첨부합니다.
5	외부 캠페인을 위해	ppt 파일	서울 코엑스에서 벌였던 캠페인을 위

	제작한 피켓		해 제작한 피켓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 조사해 제작했습니다.
6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설문조사	hwp 파일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중의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7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hwp 파일	위의 설문지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습니다.
8	일본 반출 문화재와 그 환수에 관한 보고서	hwp 파일	일본 반출 문화재에 관해 저희 나름의 연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를 오구라 컬렉션과 서릉부 도서를 중심으로 조사했고 타국의 문화재 환수 사례, 우리나라의 일본 반출 문화재 환수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교내에서 일본 반출 문화재에 관한 주의 환기,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여러 학생들이 관련된 궁금증을 제기함. 외부 캠페인에서는 대중의 주목을 끌고,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의 일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으로써 활동 부원들의 우리 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고양시킴.

○ 향후 계획

10월에 다시 한 번 간송미술관 답사를 나설 것입니다. 그 때 열릴 또 다른 주제의 우리 문화재 전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대회 이후에도 포스터 등을 제작해 캠페인을 벌이고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동아리 차원에서 역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하고 글을 쓰며 스스로의 지식수준을 높여감은 물론, 글을 모아 출판해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입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정한솔	<p>중학교 때, 도서부 선생님의 지도 하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의례 전시전에 참가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의례가 한국에 반환되었다고 해서 널리 이슈가 되었다.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는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진 의례가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독특하고 소중한 문화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p>우연히 국사 선생님께 역사 체험대회를 소개받고 떠오른 것은 이때의 기억이었다. 또 다른 기억은 어릴 적 인기 있었던 캠페인 방송 <위대한 유산 74434>였다.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던 이 방송은 여러 논란 끝에 증명했지만 그 인상은 강하게 남아있었고, ‘역사 체험’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리자 떠오르게 되었다. 문화재만큼이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소재는 드물다. 우리의 캠페인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소했던 우리 문화재의 슬픈 역사를 알게 된 것에 성취감을 느꼈고, 우리 스스로가 문화재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p>
박민규	<p>여러 자료, 책도 읽어보고 간송미술관도 다녀오며 많은 것을 배웠다. 코엑스와 학교에서 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적어도 결과를 취합할 때 오십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두 문제 모두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안타까웠다. 사실 역사체험을 하기 전에는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문화재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자세로 보았다. 하지만 적어도 궁내성 서릉부, 간송 전형필, 표암 강세황을 중심으로 하는 남종화파,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반환 등 많은 것을 배우며 문화재와 그 가치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간송 전형필이 훈민정음을 한국전쟁 내내 품고 다닌 그 정신, 표암 강세황이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김홍도와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던 정신,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문화재에 배어 있는 것이다. 문화재는 이전 세계들을 알아가는 단서들이다. 이전 세계의 흔적을 잘 보존해나갈 때, 현재 세계가 수용하고 배울 점, 현재 세계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구화되고 개인주의적으로 사회가 변했지만 옛것의 가치는 유효하다.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p>
이석화	<p>반출 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역사체험발표대회에 참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우리가 설정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실제로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 학생들과 거리의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캠프</p>

	<p>폐인을 실시한 결과, 외국에 반출되어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출 문화재에 대한 나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었다.</p> <p>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출 문화재 환수 문제 뒤에 놓여있는 이념 논쟁과 국제기구 및 법조항을 살펴보면서 문화재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다. 반출 문화재에 대한 분쟁이나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장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반출 문화재의 환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간송미술관을 방문하면서 반출 문화재 환수 이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느꼈으며, 간송 선생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소중한 문화재들을 관람하면서 우리나라의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p> <p>그러나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큰 의문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질문이었다. 만약 우리가 해외에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를 주장하면서도 국내에 있는 해외의 문화재의 거취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순된 행동일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하면 반출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처럼 바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기에, 반출 문화재 환수 문제와 함께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p>
<p>송용진</p>	<p>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에 보았고 평소에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명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항상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하고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동기와 후배가 같이 역사체험발표대회에 나가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저는 당연히 찬성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문, 그리고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부족하게 가지고 있던 지식을 채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자체적으로 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사하면서 제 자신의 능력을 시험에 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p>
<p>한승현</p>	<p>제 꿈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역사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대회에 대해서 알았을 때부터 이 대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제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전부터 있었으나, 시간도 없고, 제 자신도 아직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같이</p>

나갈 팀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아리 선배들이 대회 참가를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해 기쁜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재 반출이라는 주제를 잡은 후, 제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제 자신에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이번 대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모르는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오구라 컬렉션, 궁내청 서릉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문과 책도 많이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가 꿈인 제가 이렇게 모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모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이 대회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논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궁내청 서릉부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 혜문 스님의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잠시 흔들리고 있던 제 꿈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항상 제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역사에 관련된 대회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 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역시 이 대회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그만큼 희생한 것도 많았지만, 투자한 시간과 희생한 것들에 비해 얻은 것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5. 건의사항

지켜주세요,
우리의 독도!

접수번호	27
동아리명	다물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1. 동아리명 ‘다물’의 뜻 : ‘옛 것을 되찾다’라는 고구려 고어.
2. 작명 배경 : 단순히 옛 것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변질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작명하였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논리적 대응으로 역사 왜곡 문제를 정확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승유	남	3	동아리 부장, 보고서 총괄, 해외반응 조사, SNS 관리, 토론회 주관
2	류경우	남	3	UCC 제작, 동영상 관련 자료 정리, 교내 홍보 방송
3	박동현	남	3	역사적 자료 정리 및 분류, 독서토론회 주관
4	박현지	여	3	포스터 제작 및 홍보활동, 질문지 작성 및 분석, 시청각 자료 준비
5	손민지	여	3	PPT 제작, 동아리 학생 대상 역사 강의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지켜주세요, 우리의 독도!

- 주제 선정 이유 :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자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재판소 제소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독도는 우리 것인데 어디 감히’라는 생각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뿐 ‘왜?’ ‘그럼 어떻게’란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 깨닫게 되었다. 이에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4월 1일 ~ 5월 27일

○ 추진 방법 :

1. 토론회 개최

가. 토론 및 주제 발표

- 날짜 : 4월3일, 4월 17일, 5월 8일, 5월 15일
- 장소 : 다물 동아리실(English cafe)
- 방법 : 주제와 관련하여 순번을 정해 내용 조사 발표 → 토론 내용 정리

나. 독서토론회

- 날짜 : 4월 5일, 4월 19일, 5월 3일
- 장소 : 다물 동아리실(English cafe)
- 방법 : 매회 소주제 선정 → 관련 기사, 주제와 관련한 도서 읽기 및 관련 동영상 시청 → 토의 및 토론

2. 홍보 활동

가. 강연회 개최

- 시간 : 5월 10일 5교시 동아리 활동 시간
- 장소 : 다물 동아리실
- 대상 : 교내 '독도반' (1~3학년 10명으로 구성. '다물'과 별개로 활동) 대상
- 방법 : 독서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내용을 정리하여 PPT 제작 → 발표 → 질의 및 응답

나. 동영상 제작

- 내용 : 독도가 한국 땅이란 내용을 담은 동영상(Do you know Dokdo?) 제작
- 게시 : 5월 24일 youtube.com에 게시. 5월 27일 현재 600여명 조회.

다. 독도 포스터 제작

- 목적 : 독도에 대한 관심 재고
- 게시 장소 : 교내외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8 ~ 10 군데 선정하여 게시
(교내의 경우 각 건물 출입구 근처, 교외의 경우 학교 근처 담장 중심)
- 게시 방법 : 각종 포스터 패러디,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 포스터 등 약 3개 정도의 작품을 작성한 후 3개의 시리즈물을 위 게시 장소에 함께 게시

라. 매체 활용 홍보

- 교내 방송 : 1개월에 1회 점심시간의 교내 방송 시간을 활용한 독도 관련 홍보
- 교내 신문 : 연1회 발간되는 교내 신문에 독도 관련 기사 기재 예정(2012년부터 독도 및 역사 왜곡 관련 기사 기재 중)
- 학교 홈페이지 활용 : 각종 활동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3. 조사 활동

가. 설문조사

- 날짜 : 4월 1일
- 대상 : 안계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중 무작위로 100명 선출
- 목적 :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지식의 수준 파악 및 역사 체험활동의 방향성 선정

나. 해외 인식 조사

- 대상 : 일본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외 채팅 사이트
- 내용 :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독도를 누구 영역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일본 및 제 3국민들의 인식 조사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월 1일	설문 조사	급식소 앞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 : 독도에 관한 의식 조사 2. 대상 : 1, 2, 3학년 학생 중 무작위 100명 선정 3. 설문 방식 : 질문지법 4. 결과 : 독도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인식이 부족하며 독도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 (동영상, 단편만화 포스터, 싸이공감 글)를 제작하여 보여주거나 '다물'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월 3일	토론	다물 동아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 : 1905년 1월 28일 일본의 독도 편입 주장의 오류 찾기 2. 내용 :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03년 일본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 에 이미 독도가 대한제국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일본이 강치 어장의 획득을 원하는 시점이었고, 군사적 요충지 선정특권을 인정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후이다. 또한 독도 편입 시 내무성 요사부가 제출한 영토 편입에 관한 내용 중 '지금 시국에 대하여 러·일 전쟁 중,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작은 하나의 불모의 암초를 수납해서 주위에서 보고 있는 제 외국들이 아국의 한국병합이—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크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익이 극히 적은데 반하여,,'라는 구절이 있음. 3. 결론 : 1905년 1월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조처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러·일 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는 이미 확립된 대한 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적인 무효 조치로 보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이미 독도를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한편으로 보면 독도를 이전에는 일본 땅으로 인식 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월 5일	독서토론	다물 동아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 독도, 우리나라에 편입되다. 2. 참고서적: 독도 자료집1,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3. 내용: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산국(울릉도와 주변도서, 독도포함)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만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아찬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사자를 이용하여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때가 지증왕 13년 6월이다. 4. 결론: 삼국유사에도 삼국사기와 기술은 다르지만 기타 내용은 하다. 이러한 삼국시대부터의 우산지역(울릉도) 편입기록으로 미루어 신라 지증왕 이후부터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다.
4월 17일	토론	다물 동아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 강화조약) 2. 내용: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독도 반환 문제를 제시하였으나 미국이 거부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p>3. 결론: 독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단독 결정으로 연합국 전체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연합국이 승인한 일본 영토 인지 최종안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SCAPIN제 677호- 일본 영토를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이- 류큐 제도 및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여 개 인접 소도로 구성되며 미포함 지역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기되어 있음)에 따른다. 따라서 분명하게 독도가 우리의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라 할 수 있다.</p>
4월19일	독서 토론	다물 동아리실	<p>1.주제: 고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2.참고서적: 독도자료집1(고려사) - 바른 역사 정립기획단- 3.내용: <고려사>의 지리지에는 독도에 대한 기록을, 세가와 열전에서는 우산국, 즉 울릉도와 주변도서에 관한 기록을 상당수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종9년 동북여진이 우산지역을 침입하여 농업이 황폐화 되자 고려정부에서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보내 주었으며 덕종1년에는 우릉 성주가 그의 아들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던 기록이 있고 특히 의종11년에 우릉도(우산지역)의 땅이 넓고 기름지며 주현이 설치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이주정책을 실시할 뜻이 있어 김유립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결론: <고려사>의 지리지와 세가, 열전을 통해 우산국을 고려가 계속 통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덕종1년에는 우릉 성주가 그의 아들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는 말에서 ‘성주’라는 용어로 보아 성을 설치한 후 우산지역을 군사주둔지로 바꿈으로서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강화되었고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주정책을 실시할 뜻이 있어 김유립을 파견하였다’는 기록과 ‘주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고려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5월3일	독서 토론	다물 동아리실	<p>1.주제: 조선의 공도정책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의 관계 2.참고서적: 독도자료집1(고려사), 조선왕조실록 3.내용: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구의 노략질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자 태종3년 무릉도(울릉도) 주민을 육지에 나와 살게 하는 공도정책을 시행했다. 4.결론: 공도정책은 일본의 무주지론에 입각한 영유권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으나 당시 공도정책의 목적은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잠시 대피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본토 주민이 피역을 위해 무릉도로 숨었는데 이들을 잡아와 죄를 주려 하니 세종이 말하길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전에 범한 바를 사면해 준 일도 있으니 새로 죄 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p>
5월 8일	토론	다물 동아리실	<p>1. 주제: 한·일 기본 조약 2. 내용 : ①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② 장래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설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단,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④ 양국은</p>

			<p>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결과 지도와 같이 공동 규제 수역이 설정되어 독도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신한·일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고 말았다.</p> <p>3. 결론 : 이후 독도는 한·일 양국 간의 공동규제수역이 되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의 실질적 지배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이성적 태도로 어업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p>	
<p>5월6일 ~ 5월24일</p>	<p>포스터 제작, 홍보</p>	<p>교내·외</p>	<p>1. 주제 : 독도에 관한 관심 및 흥미 고조 2. 내용 : 독도 알리기 홍보 기간(5/6~5/24)을 활용하여 교내(본관 및 후관 출입문, 동아리실 및 교무실 게시판) 및 교외(학교 담장, 교문 입구 등)에 독도 알림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일(5/23)에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포스터를 보실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학부모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p>	
<p>5월10일</p>	<p>역사 강의</p>	<p>다물 동아리실</p>	<p>1. 주제 : 독도 바로 알기 2. 대상 : 독도반 1, 2, 3학년 대상 3. 내용 : 그 동안의 독서토론 및 토론회 결과를 PPT로 작성하여 독도와 관련한 현안 문제 및 역사 왜곡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약 50분 정도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p>	
<p>5월 10일</p>	<p>교내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p>	<p>ABS 방송실</p>	<p>1. 주제 : "Do you know Dokdo?" 2. 내용 : 매월 1회 점심 시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련한 여러 현안 안내 및 독도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였다. 3. 결과 : 교내 신문과 방송 활동을 통해 동아리 학생 몇몇의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론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p>	
<p>5월15일</p>	<p>토론</p>	<p>다물 동아리실</p>	<p>1. 주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처 방안 2. 결론: 1) 청소년 및 동아리 차원 - SNS 참여, 반크 참여, 동영상 제작 등 지속적 관심과 참여로 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한 후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 '독도 골든벨',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등 각종 역사 관련 대회 참여를 통해 정확한 역사 지식 습득을 통해 정당한 대응을 할 있도록 한다. 2) 정부 차원 - 수능 및 각종 시험에 한국사 비중을 높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청소년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독도 영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국제 사회에 동해와 독도에 대한 바른 표기 및 오류 수정을 요구한다. - 일본 도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냉정하게,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5월17일 ~ 5월25일	해외 인식 조사	인터넷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 일본인 고등학생 · 대학생 및 제3국 외국인 2. 내용 :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에 대한 알고 있는지, 독도를 누구 영역이라 생각하는지에 관한 인식 조사 3.결론 : 제3국에서는 독도분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일본의 학생들조차 독도분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더욱이 2차 세계 대전에 관련된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5월20일	‘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 : 밴드를 활용하여 독도와 관련한 재밌고 유익한 정보 공유하였다. 2. 결과 : 정보 공유 및 학생들의 관심 유발에 효과적이었다.
5월22일 ~	SNS	www.cyworld.com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 : 싸이월드를 활용한 홍보 활동 2. 결과 : 안계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5월25일 ~	동영상 제작 유튜브 활용 홍보	www.youtube.com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내용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우리 국민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약 4분 정도 길이로 표현. 한글·영어 동시 자막 처리하였다. 2. 결과: 게시 3일만에 616명 시청. 많은 학생의 독도에 관한 관심 고조에 효과적이었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그대들은 아는가, 독도	ppt	‘다물’의 토론회 및 독서 토론 활동 내용 결과 정리 → 역사 강의 자료로 활용
2.	독도를 아십니까?	wmv	독도가 한국 땅임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한글과 영어 자막으로 제작
3.	우리는 이렇게	jpg	‘다물’의 활동 내용 사진들, 싸이월드 홍보 자료
4.	독도는 외롭다	hwp	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지 결과 분석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설문 조사의 결과는 비참했었다. 그러나 약 2달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은 학생들을 변화시켰다. “우리 같은 학생이 뭘 어떻게 하겠어?”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학생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뉴스봤어?” 라고 묻고 그와 관련한 즉석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확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우리 자신의 적극적 노력이란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

○ 향후 계획

1. 교지에 독도 알림 기사 작성 - 전년에 이어 계속 독도 및 역사 왜곡의 실재를 알리는 기사 작성
2. ‘독도 골든벨 대회’ 개최
3. 수능 후 독도 탐방 계획
4. 일반인 대상 ‘독도 바로 알기’ 가두 행사 실시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승유	대한민국 영토를 위해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직접 함으로써 더 큰 자부심과 권리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게 된 것 같다. 이번 역사체험으로 알게 된 독도를 지키는 방법을 적극 실천해야겠다.
류경우	우리의 영토와 역사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손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역사 체험을 통해 느꼈다. 그리고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일본이 독도에서 한걸음씩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동현	이번 역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가 확장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사랑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먼저 독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박현지	이제껏 말로만 독도를 지켰던 내가 아닌 진심으로 무언가를 알고 지키는 내가 되었다. 훗날 지리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독도가 우리영역임을 확실히 알려 주고 싶다.
손민지	‘왜 우리는 독도를 두고 일본과 분쟁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역사체험활동은 내게 우리 영토에 대한 간절함을 심어 주는 좋은 기회였다.

5. 건의사항

1.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시청각 자료와 함께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독도 방문·견학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 보고서가 8쪽으로 제한 되어있어 저희가 공부한 모든 내용과 활동을 자세히 담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분량 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If 독도

접수번호	75
동아리명	에터밋기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역사(문화재)동아리 “예터밟기” 소개

문화재 지킴이인 “예터밟기”는 현재 지도교사 1인과 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3월에 승인과 위촉을 받아 우리 고장의 석조문화재인 보물 제 93호 용미리 석불입상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터밟기”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키고 가꾸는 동아리입니다.

“문화재사랑”이 곧 “나라사랑”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문화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예터밟기”는 “즐거고 가꾸며 지킨다는 마음으로, 참여와 나눔의 정신으로, 하나로 된 문화재를 지속적·주기적 활동으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대표적 문화재 지킴이로, 문화재 파수꾼의 선두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터밟기”의미

『예터』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매개체로 문화재를 통해 조상의 얼을 배우고 널리 알리며 잘 보존한다는 것으로, 『예』는 『홍보활동』을, 『터』는 『청소활동』을 의미합니다.

『밟기』란?

직접 디디고 밟고 경험하여, 문화재를 가슴으로 느끼고, 찾고, 기록한다는 뜻으로, 『밟』은 『답사활동』을, 『기』는 『모니터링』을 의미합니다.

“예터밟기”블로그 : <http://blog.cha.go.kr/ancientsearch>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권오은	남	2학년	영상 제작, 연출, 촬영
2	유의성	남	2학년	회의 토론 보고서 정리, 2부(외국 특파원) 대본
3	인성수	남	2학년	독서감상문 정리, 1부(국내 뉴스) 대본, ppt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의 승소에 대한 국내외 반응

- 주제 선정 이유 :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토의 입장을 무시하는 일이고, 불필요한 확인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국제사법재판의 승소 이후의 상황을 소재로 한 이유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의 판결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뉴스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년 1월 25일 ~ 2013년 5월 30일

○ 추진 방법 : 토론, 독서, ppt발표, 동영상 제작, 독도 관련 기관 방문, 독도 관련 행사 참여, 독도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독도 탐방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3.1.29	독도체험관 견학 및 독도지킴이활동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체험관 및 7층 세미나실	① 독도를 주제로 조별로 PPT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함. ② 독도체험관을 견학함. ③ 독도체험관에서 독도 홍보물(책갈피, 배지, 퍼즐 등)을 나누어 주고, 독도 수호 서명운동을 펼침.
2013.2.5 ~4.30	독도 관련 서적 탐독	각자 집	독도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함.
2013.4.2 ~5.14	토론 및 회의	교내 역사사랑방(동아리방)	역사체험 활동과 관련해 주제 선정, 계획, 진행 등에 대한을 토론과 회의를 진행함.
2013.4.13	‘동해의 푸른 섬, 독도 展’ 견학 및 독도지킴이 활동	용인문화원	① 독도 전시회를 관람함. ② 전시회 관람객을 상대로 독도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독도 수호 서명운동을 펼침.
2013.4.5 ~5.24	영상 제작	역사사랑방	독도를 주제로 대본을 작성하고 가상 뉴스를 동영상으로 제작함.
2013.5.11	<역사콘서트> 참가 및 독도 홍보활동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역사콘서트>에 참가하고, 독도 홍보물(책갈피, 배지, 히팅스탬프 등)
2013.5.27 ~5.29	독도·울릉도 탐방	독도 및 울릉도	2박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탐방함.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독도 가상 뉴스’	wmv파일	일본이 계속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한 직후의 뉴스를 가상으로 제작함.
2	‘독도 가상 외신 보도’	wmv파일	독도 승소 후의 다른 나라들의 반응과 보도를 가상으로 제작함.
3	‘나에게 역사체험이란’	wmv파일	역사체험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
4	동영상 대본	hwp파일	우리가 제작한 세 가지 동영상의 대본
5	회의 및 토론 보고서	hwp파일	역사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했던 회의와 토론에 대한 보고서 모음
6	독서 감상문	hwp파일	독도 관련 서적을 읽고 쓴 감상문
7	독도체험관 발표 자료	ppt파일	독도에 대해 조사하여 조별로 발표함
8	체험활동 사진집	hwp파일	독도체험관 견학, 독도 전시회 관람, 독도 홍보활동, 동영상 제작, 독도 탐방 등 체험활동의 사진집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우리는 먼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론과 회의를 통해 팀원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친구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안해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역사를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독도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읽기 힘들었던 독도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역사는 직접 체험하는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서를 통해서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책을 독서하면서 직접 안용복의 도일에 참여해보고, 홍순철 의용수비대 전투에도 참전해보는 등 상상을 하면서 역사를 딱딱한 것이 아닌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 (발표예정)

- 동아리 향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활용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독도에 대한 영상을 행사마다 발표회를 개최하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함으로써 독도를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자주 의식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독도 지킴이 학생들과 독도에 대해 우리가 만든 영상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대상으로 독도 종합보고서 사진 설명회 개최 (6월)
2. 독도 이사부 학회 문화유산 방문교육 때, 사후 보고서 발표 (6월)
3. 본교 축제 때, 울곡고 학생 대상 독도 영상제 실시 (10월)
4. 10월 25일 독도의 날 독도 설명회 개최 (10월)
5. 제 26회 울곡문화제 때, 독도 세미나 개최 (10월)
6. 경기도 교육청 주관 독도 동북아 평화 교육 행사 체험활동 (11월)
7. 파주시 우수 동아리 박람회 및 경진대회 발표 (12월)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권오은	<p>2학년이 되면서 처음 참가해보는 역사체험발표대회를 통해 친구들과 많은 갈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대립, 다툼 속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타협하고 토론하면서 우정도 만들고 친구들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나도 친구들에게 본받을 점도 찾았다 때론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나도 친구들의 잘못된 점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지적해 준 것들을 적어 놓았다가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도 지적해 준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는 역사체험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도 많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나에게 역사체험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독도에 대한 부족한 지식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준 점도 정말 감사한 것 같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p>
유의성	<p>먼저 역사체험발표대회를 처음 접해볼 때, 욕심도 많았고, 의욕도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아리가 독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독도에 직접 탐방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져, 주제를 독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독도로 정하고 보니 주제가 너무 포괄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 구종형 역사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하셨던</p>

	<p>IF 역사가 생각났습니다. 역사에서는 말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선생님은 IF 역사를 통한 시간여행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만약~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통해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회의와 토론을 하면서 의견 대립과 갈등도 많았지만, 회의를 거듭할수록 팀원들간의 호흡도 좋아지고, 친구관계도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p>
<p>인성수</p>	<p>독도라는 막연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들을 ppt로 만들고, 발표하고, 독도와 관련된 책을 읽고, 독도를 주제로 회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게 없는 것을 갖기보다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고 책자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 노력 중입니다.</p>

5. 건의사항

1. 입상 성적과 상관없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중·고학생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 1). 체험활동,
 - 2). 답사활동,
 - 3). 계기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2. 참가팀에 비해 입상 편수가 부족합니다. 다음 대회 때에는 입상 인원을 늘려주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3. 입상된 좋은 작품은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일회성이 아닌 대회 계기로 해서 독도와 관련된 오프라인 상으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는?
우리 학교에서부터!

접수번호	68
동아리명	배세토(輩世討)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역사 동아리 이름인 배세토(BESETO, 輩世討)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ESETO는 한·중·일 3국을 상징하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베이징, 서울, 도교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輩世討는 ‘세상에 대해 토론 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동아리 명칭을 짓게 된 배경은 최근 불거진 한·중·일의 역사 갈등 속에서 역사 현안을 토론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식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분노하면서도 실제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자칫 또 다른 자국 중심적이고 편협한 역사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라도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인 역사 인식을 고민하고 공유하고자 배세토가 탄생하였습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광개토	남	2	강제징용 모의법정 시나리오/동영상 제작, 역사 신문 제작, 캠페인 자료 제작
2	손성광	남	2	강제징용 모의법정 시나리오/동영상 제작, 역사 신문 제작, 캠페인 자료 제작
3	송지영	남	2	한중일 역사 교과서 비교 PPT 제작, 일본군 위안부 문제 UCC 제작
4	정승훈	남	2	한중일 역사 교과서 비교 PPT 제작, 일본군 위안부 문제 UCC 제작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동북아 평화는? 우리 학교에서부터!

- 주제 선정 이유 : 우리 동아리가 이번 대회 참여를 결심하게 된 것은 학기 초 학교 화장실 벽에 남겨진 욕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000는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너희 엄마 일본인이냐!” 등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낙서를 보면서 지금 일본 정부와 보수 단체의 역사 왜곡 주장만큼이나 우리 속의 반일 정서 또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1년간 동북아 주요 역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기초 소양을 쌓았습니다. 또한 방학 중 독서활동 필수도서로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출판사)>를 선정하여 읽게 되었는데, 진정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감이나 불신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 없이는 소통할 수 없고, 소통이 없다면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는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우리와 같은 학생들은 대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배울까, 그리고 그러한 배움의 차이가 어떠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과 관련된 청일전쟁이라는 공통의 사건에 대해 각국의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술이 어떠한 역사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 현안에 대한 고민이 역사 동아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알리기 위해 역사 신문을 제작하고 위안부 망언 규탄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CC를 제작,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 예정입니다. 또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모의 법정 운영을 통해 강제 징용의 진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 3. 8 ~ 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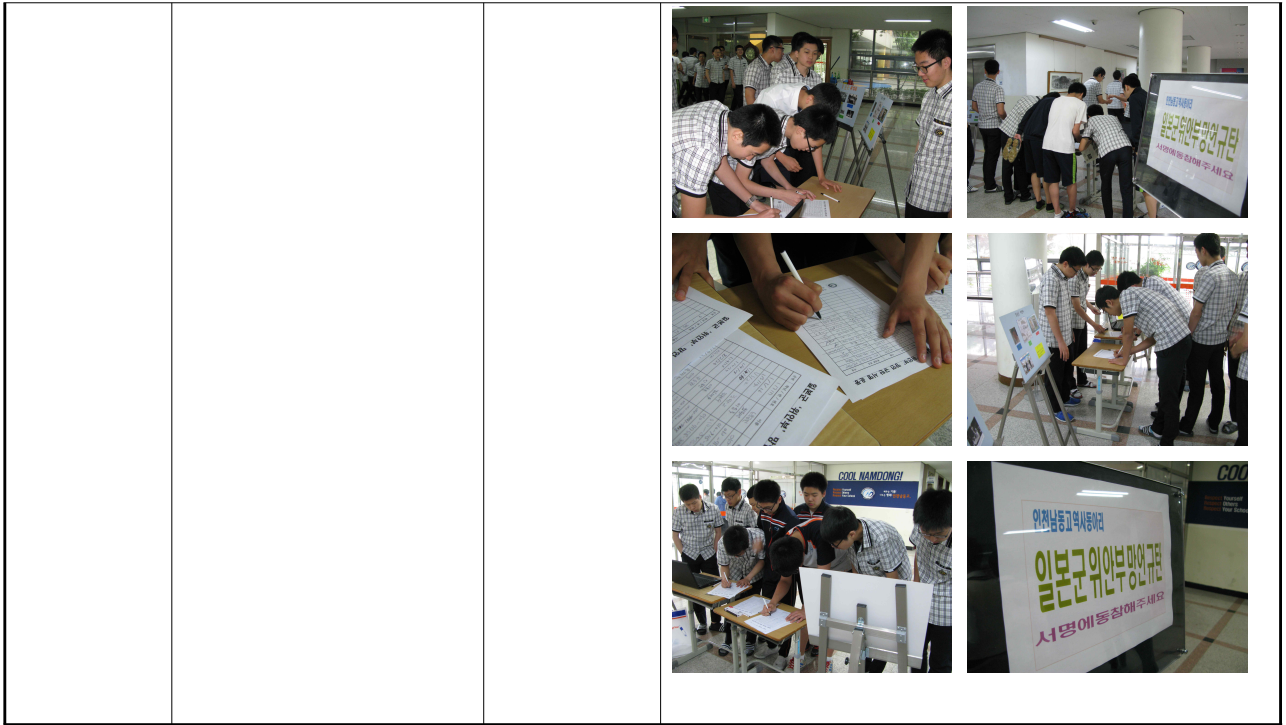
○ **추진 방법** :

- 한, 중, 일 역사 교과서 비교 분석 PPT 제작
- 강제 징용에 대한 모의 법정 시나리오 작성 및 동영상 제작
- 위안부 망언 규탄 캠페인 실시 및 서명 운동 전개
- 주요 역사 현안에 대한 역사 신문 제작 및 배포
- 위안부 문제 UCC 제작 및 상영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3. 8(금)	활동 논의	동아리실	- 역사 동아리 조직 및 활동 논의
3. 15(금)	독서 토론 주제선정/역할분담	동아리실	- <미래를 여는 역사> 소감 발표/토론 -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참가 안내 - 참가자 모집 및 주제 논의 - 활동 계획 토론 및 역할 분담
3. 18(월) ~ 3. 29(금)	중국과 일본 교과서 구매 및 번역	도서관	- 중국과 일본 교과서 인터넷 구매 - 청일 전쟁에 대한 부분 번역 - 중국어, 일본어 선생님의 협조

			 <p>중국 인민교육출판사 (2006)</p> <p>일본 시미즈서원 (2013)</p> <p>한국 미래엔컬처 (2010)</p>
4. 1(월) ~ 4. 5(금)	교과서 분석	동아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일전쟁에 관한 교과서 비교 분석 - PPT 제작  
4. 15(월) ~ 4. 19(금)	역사신문 제작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역사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역사 신문을 게재할 주제 선정 - 현안별 역할 분담 및 조사 / 제작
4. 22(월) ~ 4. 30(화)	위안부 문제 UCC 제작	동아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 관련 뉴스 기사 등 현안 조사 - UCC 제작  
5. 16(목) ~ 5. 20(월)	위안부 망언 규탄 캠페인 준비	동아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 관련 현안을 조사 - 팸플릿 등 캠페인 제작  
5. 21(화) ~ 5. 24(금)	위안부 망언 규탄 캠페인, 서명 운동 실시	학생 식당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 역사 신문 배포 - 위안부 망언 규탄 서명 운동 실시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한중일 역사 교과서 비교 분석	PPT	청일전쟁 서술 부분을 한, 중, 일 역사 교과서를 비교 / 분석
2	강제징용 모의 법정 운영	hwp 동영상	모의법정 시나리오 작성 및 역할극 동영상 제작
3	역사 신문	pdf	주요 역사 현안에 대한 신문 제작
4	위안부 망언 규탄 서명 운동	jpg	서명 운동 명부 일부 스캔
5	위안부 문제 UCC	동영상	위안부 현안을 모아 UCC 제작하고 1학년 학생 전체에게 상영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한, 중, 일 역사교과서 비교

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중, 일 역사 교과서에 담겨진 역사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도 부정부패, 침략과 전쟁, 인권 억압 등 씻기 어려운 상처들로 얼룩져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런 과거를 감추고 없애거나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시키려 한다

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끄러운 기억을 간직해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를 교훈 삼아 조금이라도 발전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함이므로,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한, 중, 일이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보는 지성인이 늘어나야,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강제 징용 모의 법정

강제 징용 모의 법정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과 증인 측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하면서 입장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이 노동 착취, 인권 유린 등을 당하였지만 그에 대한 보상조치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의 법정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의 입장이 스스로 되어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미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도약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캠페인 및 서명운동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준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대, 종군위안부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정확한 뜻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미화해버리는 일본의 현 모습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의 힘겹고, 아픈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는 분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일간의 악감정이 청산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 지속적으로 역사 신문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역사 인식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C를 더욱 보완해서 1, 2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 동북 공정,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역사 왜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겠습니다.
- 학교 축제 때 역사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광개토	<p>이번 역사체험을 하면서 한, 중, 일에 역사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가 끝나고 밤늦게까지 모의법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교과서에만 봤던 징용자들이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역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의로 왜곡된 역사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사신문을 작성하면서 과거에 대한 역사 시선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역사가 아닌, 내 손으로 직접 역사를 쓰면서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기를 기원하고 활동을 하면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p>
손 성광	<p>요즘엔 위안부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이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같이 다른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각료들이 참배를 하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야스쿠니 신사를 젠틀맨으로 알고 있어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삼국의 교과서에서 청일 전쟁을 비교해 봤는데 각각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자시의 나라에 대한 입장에서 반성보다는 자기 나라에 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징용에 대해 조사할 때 징용을 위안부에 비해 관심이 덜 받고, 현재에는 중국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부터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다른 나라와 함께 풀어 나가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역사에 관심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p>
송지영	<p>애들과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가 약간 있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듣고 각자 활동을 분담하고 열심히 하여 준비가 쉽게 느껴졌습니다. PPT와 UCC 만드는 것이 많이 서둘러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움 되는 말을 해주어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면서 한, 중, 일이 각각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우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여하고 싶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잘 알게 해주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또 나가게 된다면 그 때는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하고픈 마음도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정승훈	<p>이번에 함께 활동을 하면서 청일전쟁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일을 통해 한중일이 각자 청일전쟁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자국의 땅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역사라 잘 서술하지 않았고 중국은 패배한 전쟁이라 청일전쟁 내용 보다는 청일전쟁에서 싸운다가 죽은 영웅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후 처음으로 거둔 승리라 전쟁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번에 역사신문을 발행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역사신문을 계속 만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중일이 다 모여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 왜곡도 없고 인식 차이도 없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	---

5. 건의사항

이러한 색다른 역사 체험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은폐되었던 역사를 밝히고 저희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 기간은 대략 세 달 정도로 되지만, 그 사이에 중간고사가 있기에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마다 시험 일정이 대략 비슷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향후 일정을 조정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접수번호	56
동아리명	사모해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창원봉림고등학교 역사 동아리인 저희 사모해는 ‘역사의 모퉁이를 비추는 해’의 줄임말로써, 역사의 어둡고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까지 파헤쳐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해가 기울면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듯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저희 사모해 부원들은 모두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에 대해 진지하며, 역사를 배우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6년 동안 선배들의 발자취를 거름삼아 다양한 역사 관련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기연	여	2	동영상 제작, 자료수집, 위안부 사진전 관리 및 감독, 책갈피 판매, 1억인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돕기 모금 운동, 학교 방송참여.
2	김진홍	남	2	자료수집, 위안부 사진전 관리 및 감독, 책갈피 판매, 1억인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돕기 모금 운동.
3	박연정	여	1	책갈피 디자인 제작, 자료수집, 위안부 사진전 관리 및 감독, 책갈피 판매, 1억인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돕기 모금 운동.
4	최은지	여	2	자료수집, 방송 멘트 작성, 위안부 사진전 관리 및 감독, 책갈피 판매, 1억인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돕기 모금 운동.
5	황보길	남	2	ppt 제작, 자료수집, 위안부 사진전 관리 및 감독, 책갈피 판매, 1억인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돕기 모금 운동.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일본군 ‘위안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 주제 선정 이유 : 올해 저희 동아리 활동 주제가 일본군 위안부로 정해 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한 최고령 위안부 ‘김복득’ 할머니의 자서전을 보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요즘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들이 계속 되었던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저희 부

원들이 사는 창원에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5분이 서로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의지하고 있는 곳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이란 곳인데, 이곳은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고, 방 두 칸짜리 가정집을 사무실로 하여 관리자 1분이 무료 봉사를 하시다시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예산이 부족해 나이가 들어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들께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그것은 당시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겪어야 했을 고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활한 매의 발톱에 낚여 가는 연약한 짐승처럼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세상에 대해 밝지 못해서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분들께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괴로우시더라도 힘내시라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봉림고 위안부의 날’ 행사 주최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년 3월 ~ 5월 29일

○ 추진 방법 : 우선 저희는 위안부 수업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체 토론을 통해 일본은 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을 ‘봉림고 위안부의 날’로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책갈피를 판매하였고, 수익금 전부는 ‘마창진 위안부할머니를 위한 시민 모임’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봉림고 위안부의 날’은 아침 자습시간의 영어듣기 방송대신 직접 제작한 위안부 할머니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매점 앞 넓은 공간에 위안부와 관련한 사진전시회를 하였고, 우리가 직접 만든 책갈피를 판매하였으며, 정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1억인 서명운동에 뜻을 동참하여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직접 실천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3.3.19	위안부 관련 수업	교내 특별실	위안부의 의미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최고령 ‘김복득’ 할머니에 대한 영상을 보았고,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2013.3.25	위안부 문제와	교내 특별실	일본은 왜 그렇게 망언을 일삼고 있

	관련한 자체 토론		는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아리원들끼리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 교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자는 의견이 나와 '봉림고 위안부의 날'을 기획해 보기로 하였다.
2013.4.10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방문	마창진 시민모임 방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에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창원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학교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을 제공 받았다.
2013.4.10 ~ 5.24	봉림고 위안부의 날 준비	학교	책갈피 제작, 동영상 제작, 전시회 준비 등 '봉림고 위안부의 날'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013.5.24	'봉림고 위안부의 날' 동영상 시청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1억인 서명운동	각 반 교실	때로는 글이 주는 감동보다 잘 만들어진 영상이 주는 감동이 크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위안부 할머니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를 전교생이 아침 자습시간에 시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대협에서 추진하는 1억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각 반에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	'봉림고 위안부의 날' 책갈피 판매	매점 앞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을 돕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든 책갈피를 판매하였다. 개당 500원 판매하였지만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많아 300개 정도 팔렸는데 263,890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	'봉림고 위안부의 날'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매점 앞	영상으로 보지 못했던 내용을 만화 형식의 내용과 직접 시위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사진을 전시하였다.
2013.5.29	책갈피 판매 수익금 전달	마창진 시민모임 방문	책갈피 판매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에 전액 기부하였다. 앞으로도 시민 모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고 특히 7월에 1박 2일로 떠나는 위안부 역사탐방에 참가하고 청소년 실천단으로서 활동하기로 약속하였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일본군 위안부 -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wmv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 그 피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 등을 담은 동영상
2	일본군 위안부 - 나를 잊지 마세요	hwp	일본군 위안부의 뜻, 당시 상황, 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 현황 등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조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이신 김복득 할머니의 생애와 현재 활동, 수요 시위, 일본의 망언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
3	일본군 위안부 -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ppt	봉림고 '위안부의 날' 제정 및 주최 활동 소개 등 사모해 활동 내용을 담은 발표자료
5	봉림고 '위안부의 날' 관련 사진	hwp	봉림고 '위안부의 날' 준비 모습과 활동 모습 등 행사 사진 및 설명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5월 24일을 제 1회 봉림고 '위안부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실시하였던 것은 우리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창원봉림고등학교 전교생 대부분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억인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책갈피 300개를 만들어 마창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 263,890원을 마련했고, 몇몇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 정기 후원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로 인해 봉림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 인식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에 자주 들러 사무실 청소 등의 일을 하는 등 부족한 일손을 채워드릴 생각입니다. 또한 그 곳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그 분들의 손녀, 손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또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에 있을, 매주 수요일 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 참가와 더불어, 일본군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위안부 할머니 명예회복 청소년 실천단에 참여해 올해의 동아리 활동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7월 13일 ~ 14일에 실시하는 위안부 역사

탐방 1박 2일 캠프에도 참가하여 나눔의 집 등 위안부 관련 시설 및 박물관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5월 24일로 지정해 실시했던 봉림고 ‘위안부의 날’ 역시 매년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기연	<p>올해의 동아리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였지만 저는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빠져보지 못했습니다. 주제 자체가 무겁기도 했거니와, 나와 관련은 있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위안부의 날’ 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교장선생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행사였기에 부담스러움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만들면서 동아리 선생님께 우리 창원에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분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그 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동아리 부원 모두가 저와 같은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준비 한 끝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행사가 대 성공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는 무심하게만 보였던 친구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너도나도 책갈피를 사겠다며 쉬는 시간마다 몰려드는 통에 한 통 가득 채워진 돼지 저금통을 보며 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성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p>
김진홍	<p>사실 처음에 위안부를 주제로 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었는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니 정말 잘했고, 그 이유는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의 날을 맞아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기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안부의 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본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망언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p>
박연정	<p>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처음으로 큰 발표대회에 나가게 되어 부담도 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과정에서 위안부를 더욱 더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동아리에서 5월 24일에 개최한 ‘위안부의 날’에 선배, 동급생들과 함께 책갈피 판매와 위안부 할머</p>

	<p>니 돕기 모금운동을 하게 되면서 위안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나 혹은 위안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실들을 알릴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았기에 너무 뿌듯했습니다.</p>
최은지	<p>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행하라, 그런 다음 말하라.” 이는 실천의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활동 중에 직접 어떤 식으로 할지 기획도 해보고, 어떤 영상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까 등의 구성도 기획 해봤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나는 위안부의 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는 올해에만 하는 단발성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 관련 행사가 많이 생겨서 학생들의 역사 인식 제고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p>
황보길	<p>처음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나가는 주제로 위안부가 선정되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달리 성공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우익 정치인들은 “위안부가 필요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안부의 날을 만들어서 위안부 책갈피 판매와 1억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모든 부원들이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이라는 곳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행복해 지셨으면 합니다.</p>

5. 건의사항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모진 일본군 위안부 생활로 인해 얻은 갖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외로움과 하루하루를 싸우며 버텨가고 계십니다. 할머니들께 필요한 건 많지만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일본정부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죄를 받는 것이지요. 그동안 역사 관련 단체나 의식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해왔지만, 아직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하는 그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겐 시간이 없습니다.

충주(중원)고구려비를
통한 동북공정 알리기
프로젝트

접수번호	129
동아리명	역사사랑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저희 동아리는 2009년에 설립되어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역사사랑’이라는 동아리명을 지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역사 인식을 깨우쳐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권예슬	여	3	팀장, 회의 진행, 사진 촬영,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동화책 그림
2	김다미	여	3	자료수집, 학교신문 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동화책 그림
3	이지혜	여	3	자료 요약, 충주시신문 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홍보 구상, 동화책 글쓰기
4	전해라	여	3	답사일정 계획, 라디오사연 보내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동화책 글쓰기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동북공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북공정 알리기

- 주제 선정 이유 : 동북공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미 동북공정으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태에 아직까지도 동북공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북공정과 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주제로 선정 하였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3월 말 ~ 5월 말

○ 추진 방법 :

1. 우리고장의 유적지 충주(중원)고구려비 답사
2. 동북공정에 대한 토론
3. 동북공정에 대한 동화책(팝업 북) 만들기
4. 동북공정에 대한 UCC 만들기
5. 동북공정에 대한 포스터 만들어 학교 및 SNS 홍보
6. 학교신문, 충주시 신문, 라디오 사연보내기로 동북공정에 대해서 홍보
7.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피켓 홍보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월 12일	포스터 만들기	충주예성여고	동북공정에 관한 포스터 만들기
4월 15일	학교신문 투고	"	교내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신문 원고를 써서 학교 신문에 올리기
4월 8일~ 4월 19일	거리 홍보 용품 만 들기	"	리플렛, 서명운동지, 피켓 만들기
4월 19일	토론	"	동북공정의 중국측, 한국측, 의견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기
4월 1일~ 4월 21일	동화책(팝업 북)만 들기	"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팝업 북 만들기
4월 28일	답사	충주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답사
"	충주 홍보	충주고구려비, 충주탑평리 칠층 석탑	충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해서 홍보하기 (리플렛 나누어주기, 피켓홍보, 서명운동)
5월 6일~ 5월 16일	리플렛 만들기	충주예성여고, 인쇄소	충주 홍보 활동 때 부실했던 리플렛 새로 만들기
5월 10일	충주시 신문 투고	충주예성여고	충주고구려비 홍보 활동과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로 '월간예성'에 투고
5월 14일~ 5월 17일	거리 홍보 용품 만 들기	"	충주 홍보 활동 때 미흡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피켓, 서명운동지를 새로 만듦
5월 18일	서울 홍보	광화문 광장	많은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홍

			보 (리플렛 나누어 드리기, 서명운동)
5월 19일	서울 홍보	남산	많은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을 알리기 위해 남산에서 피켓홍보 (리플렛 나누어 드리기, 서명운동)
5월 28일	라디오사연 보내기	충주예성여고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동북공정을 알리기 위한 사연을 라디오 홈페이지에 올리기
5월 14일~ 5월 29일	UCC제작	"	동북공정에 관해서 동영상 만들기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동북공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UCC	동북공정을 알리기 위한 UCC
2	동북공정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두달 간의 이야기	PPT	두달 간의 활동 정리
3	아빠가 읽어주는 동북공정 이야기	PPT	동화책(팝업북)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인터넷 조사와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동북공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동북공정에 대하여 토론토 하고 동북공정 알림이 포스터 제작, 홍보 피켓 제작,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우리 자신들 또한 동북공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서울과 충주에서 동북공정 알리기 프로젝트로 인해 5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북공정 반대에 찬성하였고 동북공정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사람들이 우리 고장 충주에 위치한 충주고구려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들 자신은 동북공정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분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역사분쟁문제를 해결 위해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 충주시 월간예성신문 투고로 인해 6월 25일에 동북공정을 알리는 글이 게시 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계속해서 동북공정을 연구하고, 아직까지 동북공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동북공정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할 것이다. 또한 동북공정 수업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게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앞장 서 나아갈 것이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권예솔	<p>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해 알리기 위해 우리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상의하면서 의견도 내보고, 그 의견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동북공정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의 홍보 활동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는 표정을 짓거나 말을 듣는 것도 정말 즐겁고 뿌듯한 일이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달 동안 시험공부를 준비하느라 없는 시간을 내고, 자는 시간을 쪼개 가면서도 틈틈이 준비하여 계획한 일을 모두 실천한 점에서 나 스스로가 정말 대견스럽다. 홍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거절당할까봐 겁났던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렸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접해 보지 못했던 일인 리플렛 만들거나 동화책 만들기, UCC 만들기 등 평소에 내가 접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 있는 충주고구려비는 중요성을 깨달고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동북공정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도나 동북공정의 사례처럼 우리의 것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p>
김다미	<p>두어 달간 ‘충주고구려비를 통한 동북공정 알리기 프로젝트’라는 과제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짜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야! 라는 마음 반, 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반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을 하나씩 소화해 낼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그에 따라 내가 그동안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에 너무 방관하고 있었으며 무작정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문제만을 찾아 나섰던 것만 같아서 내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부끄럽기도 했다. 이번 과</p>

	<p>제탐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무관심한 태도에 실망하고,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 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SNS를 비롯한 피켓홍보 등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이번 과제 탐구를 통해서 훗날 나 자신을 뒤돌아 봤을 때 내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역사적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겠다.</p>
이지혜	<p>사람들에게 ‘동북공정 알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북공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알게 되는 성장과 더불어 나 자신 또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다. 이번 활동을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굴한 것 같다. 또 이번 활동에서 리플렛 제작에 참여도 해 보고, 동북공정 홍보자료 만들기를 통해 동북공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UCC제작, 동북공정에 관한 팝업북도 만들었다. 활동 내내 즐거웠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 ‘동북공정을 처음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북공정에 대해 알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와는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받았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알려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다.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알아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 뿌듯하다. 비록 이번 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였다. 이제는 동북공정에 대해 아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더 나아가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역사분쟁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p>
전해라	<p>고 1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해왔었지만 일찍 끝나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이번 동아리에선 늘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 뿌듯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일을 했을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 이번 동아리를 하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는데 내 스스로가 주어진 임무에서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 나에게 생겼으므로 더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직접 홍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나 부터가 먼저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나의 진로가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는 자주의식을 갖고 역사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p>

쿠릴열도, 조어도
사례 연구를 통한
독도문제 해결방안

접수번호	111
동아리명	아르스 노바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동아리명 소개

아르스 노바(Ars Nova)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14세기 이르러 3박자 리듬의 기존 음악 형식을 혁신적으로 탈피한 새로운 음악이 출현하였는데 이 음악은 작은 단위의 음표들을 사용하였고 우아하고 섬세한 속성을 지녔습니다. 기존 음악과 달랐기에 아르스 노바라 명명되었고 아르스 안티쿠아(Ars Antiqua: 낡은 형식의 예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조명하고 새롭게 창조해보자는 취지를 동아리명에 담았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중-일, 러-일 간 영토 문제가 끊임없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고, 한때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무인도, 암초들이 지금은 풍부한 자원을 지닌 땅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으며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어도의 중국 어선을 억류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보다 각종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칫 국가 간 분쟁의 불씨가 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적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독도문제를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보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반도 주변의 영토 분쟁 사례들 중 쿠릴열도와 조어도 사례 연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함께 한 동아리 모임이 바로 '아르스 노바'입니다.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동주	남	2	총괄기획, 자료통합 및 정리, 보고서 작성
2	김민혁	남	2	대처 논리 개발과 편집, 블로그 만들기
3	김재영	남	2	신문스크랩 및 기사 작성, 설문지 문항 작성
4	김재훈	남	2	인터넷자료 검색, 온라인 질의 및 답변
5	김정재	남	2	사진자료 검색 및 수집, 설문조사 내용 분석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주제 선정 이유 : 최근 쿠릴열도, 조어도, 독도 등과 관련한 영토분쟁 문제가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섬, 암초들이 풍부한 자원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주변 각국은 영토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드러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시며 “독도는 우리 영토, 목숨 걸고 지켜야”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보도를 보면 ‘잘했다’, ‘못했다’, ‘우려스럽다’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우리 것이라 떳떳하게 천명하고 방문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한반도 주변 영토분쟁 사례의 연구를 통해 독도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번 역사체험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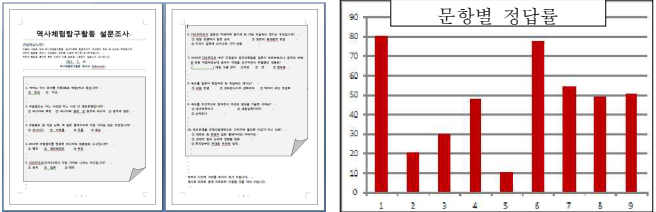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3년 3월 2일 ~ 2013년 5월 31일




○ 추진 방법 :

서적 및 문헌 고찰 / 교내 토의, 토론 / 교내 설문조사 / 인터넷 블로그 활동
학교 내 전시, 홍보 / 학교 밖 전시, 홍보, 설문조사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장소	세부 내용
3.2~ 3.12	동아리 구성 및 역사 체험활동 주제 선정	본교 2-1 교실	동아리명을 ‘아르스 노바’로 확정하였음 부원 5명을 모집하였고 역사체험 주제를 ‘쿠릴열도, 조어도 사례연구를 통한 독도문제 해결방안’으로 정함
3.13~ 3.22	활동 계획서 작성 및 동아리원 역할 분담	본교 2-1 교실	활동방법과 세부계획을 세움 세부계획과 활동방법별로 역할을 분담함
3.23~ 3.29	아르스 노바 로고 만들기 1. 독도는 우리땅 상징 2. 역사체험 활동 동아리 3. 아름다운 우리 강산 홍보용 피켓 만들기	본교 2-1 교실, 도서관	 <p>새로운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임</p>

<p>3.30~ 4.6</p>	<p>1. 동영상 시청 일본 독도야욕 동영상 (반박 논리 개발용) http://video.mgoon.com/5120476</p> <p>2. 블로그 제작 -아르스 노바 블로그 http://blog.naver.com/kim1dj</p>	<p>본교 2-1 교실</p>	 <p>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은 야욕에 찬 허구임 일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함</p>
<p>4.7~4 .13</p>	<p>설문조사지 제작</p> <p>1. 쿠릴열도와 조어도분쟁 관련 질문</p> <p>2.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 에 제소하면 안되는 이유</p> <p>3. 실효 지배의 중요성</p>	<p>본교 2-1 교실</p>	 <p>설문조사를 통해 쿠릴열도, 조어도, 독도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음</p>
<p>4.14~ 4.20</p>	<p>홍보자료 만들기</p> <p>1. 조어도</p> <p>2. 쿠릴열도</p> <p>3. 독도</p>	<p>본교 2-1 교실, 집</p>	 <p>홍보자료를 만드는 가운데 독도사랑이 깊어가고 쿠릴열도와 조어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음</p>
<p>4.21~ 4.29</p>	<p>학교 입구 홍보 활동 피켓과 보드를 들고 홍보에 나섬</p>	<p>학교 교내</p>	 <p>학교건물 밖 출입로에서 홍보용 피켓과 판넬을 들고서 쿠릴열도, 조어도, 독도 사례를 홍보함</p>
<p>4.21~ 4.29</p>	<p>학교 내 홍보 활동 피켓과 보드 게시 쿠릴열도, 조어도 문제를 알리면서 독도문제와 연계함</p>	<p>학교 교내</p>	 <p>학교내 복도에 홍보용 자료들을 전시하였으며 많은 학생들 외에 선생님들의 호응을 얻음</p>

<p>4.30~ 5.6</p>	<p>동아리 토의, 토론 인터넷 자료 및 논문 검색 PPT 만들기</p>	<p>본교 2-1 교실</p>	 <p>심도있게 세부토의 및 토론을 시행하며 보고서 및 발표용 자료를 만듦</p>
<p>5.7~ 5.13</p>	<p>설문지 문항 만들기 설문 진행하기 설문 결과 분석하기</p>	<p>본교 2-1 교실 및 1학년 교실</p>	 <p>설문 문항은 동아리원 토의로 결정하였고 설문진행은 지도선생님께서 도와주셨음. 설문결과는 엑셀파일로 정리, 토의하며 분석함</p>
<p>5.14~ 5.21</p>	<p>학교 밖 거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설문조사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한 독도문제 설문조사</p>	<p>강남역 거리 홍보활동 및 설문조사</p>	 <p>강남역 CGV 앞에서 홍보용 피켓과 판넬을 설치하여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리고 독도문제 중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함</p> <p>강남역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경험하였음</p>

5.22~ 5.26	학교 지도선생님께 보고서 및 설문분석지 발표 후 지도를 받음	학교 지도선생님과의 토의	 <p>학교선생님께 발표 후 지도 받음 세부수정을 함</p>
5.27~ 5.30	자료종합 및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분석보고서 작성 PPT 발표 자료 작성 UCC 홍보영상 제작	최종 보고서 작성	 <p>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발표용 자료 및 UCC 홍보 영상을 제작 완료함</p>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쿠릴열도, 조어도 사례 연구를 통한 독도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PDF	쿠릴열도와 조어도의 분쟁사례 연구를 통하여 독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봄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국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2	학교 및 강남역 거리 설문분석 보고서	PDF	설문조사를 통해 한반도 주변 영토분쟁과 독도에 관한 지식을 조사하고 항목별로 분석함
3	주보고서교내발표자료	PDF	쿠릴열도와 조어도의 분쟁사례 연구 및 독도문제 해결방안 도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학교 내 발표자료
4	설문분석보고발표자료	PDF	한반도 주변 영토분쟁에 대한 학교 내 및 강남역 거리 설문조사 결과들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든 학교 내 발표자료
5	독도설문지원본	PDF	77명 설문참여자 설문지를 스캔하여 데이터로 만듦 강남역 거리설문 데이터는 설문분석보고서에 실려있음
6	설문분석데이터처리	XLS	77명 설문지 항목별로 정오답을 0,1로 처리하여 엑셀 입력 후 분석에 이용함
7	독도홍보동영상	WMV	학교 및 강남역 거리 홍보, 토의, 토론 등 모든 자료를 활용한 아르스노바 독도홍보영상
8	독도홍보노래	WMV	독도노래를 활용한 독도홍보영상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쿠릴열도 분쟁사례 연구를 통해 합의나 약속보다는 실효 지배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조어도 분쟁사례 연구를 통해 슈퍼강국 중국의 힘 앞에 일본의 실효지배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 자료는 외교적으로 영토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과거 섬 혹은 암초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각국들이 영토분쟁에 뛰어들고 있는 배경에는 해양자원, 지하자원, 동물자원 등 각국의 이익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르스 노바의 독도문제 해결방안은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역사자료에 기반한 확고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지향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력 강화에 힘쓰는 것입니다.

○ 향후 계획

동북아 영토분쟁 사례를 쿠릴열도, 조어도 외의 다른 사례로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개국 간 영토분쟁인 남사군도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영토분쟁 사례를 연구해보고 독도와 이어도를 엮어 그 해결방향을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한목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독도문제의 세부 내용, 동북아 영토분쟁 관련 지식은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 문제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책으로 알던 지식들은 체험을 통해 실감하면 훨씬 더 흥미롭고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동아리원들은 다양하게 역사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 동 주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문제를 이슈화시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울분을 토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 인접국들의 영토를 침범하고 주권을 유린한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동북아안정, 제국의 자존이니 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동북아 영토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같은 나라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함께 독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였다. 각종 토의, 토론, 교내 홍보, 거리 홍보 등을 통하여 아르스 노바가 연구한 것들을 적극 성과하였다. ‘독도는 우리 땅’임이 분명하지만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지키기 위해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하며, 불순한 야욕을 품는 집단에 대해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김민혁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하여 무대응, 무전략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는 독도 실효지배를 하는 나라로서 당연히 유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작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우리 땅임을 천명하셨는데 일본의 반발과 국내외 비난이 있었음에도 절대 필요한 일이었다.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소련은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의 반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조어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한 후 최근에는 항구와 등대까지 설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독도 방파제와 선착장 건설 외에 자원 탐사, 휴양지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 정치,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여 일본 우익세력들과 일본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여러 책동들을 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동북아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 독도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략과 대응 수위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김재영	최근 한일문화연구소장 김문길 교수는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점양소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고 있는데,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명확히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본 18세기 국제공인지도조차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도 일본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탐구체험활동을 통해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매우 감격스럽다. 국제적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안목이 생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가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사실이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확실한 의사표명과 행동을 해야 한다. 역사체험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외에도 동아리원들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었기에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김재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했었는데 강남역 거리홍보, 교내홍보 등 동아리원들과 함께 뛰어나가 사람들과 접하는 기회는 참 소중했다. 창피하다거나 민망한 느낌은 사실 남들의 느낌이 아닌 바로 내 느낌이었다. 동북아 분쟁지역에 대한 홍보를 받 친구들과 거리에서 한 것은 특히 나에게 큰 의미이다. 창피함을 극복한 경험은 참 소중했다. 독도를 지켜내려는 올바른 목표 하에 홍보에 나서는 건 좋은 일이며 오히려 당당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에 표방했던 무대응, 무전략 정책도 소심함의 결과다. 국내 정세가 불안해질까봐 외부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언제까지 보고도 못 본 척 조용한 외교로 일관할까?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 순이익을 합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순이익에 못 당할 만큼 우리의 기업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외교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김정재	교내외 설문조사를 통해 쿠릴열도, 조어도 위치는 물론 독도문제의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음을 알 수 있어 충격적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처음 독도를 우산국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49.4%,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50.6%의 학생들만이 바로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 자국 영토인 독도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동북아 영토분쟁 사례연구를 통해 독도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떠한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의 잔꾀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힘의 논리와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국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번 역사 체험활동을 함께 한 동아리원들과, 무엇보다 지도감독에 힘써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5. 건의사항

독서, 신문읽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온 역사를, 학교 내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강남역 거리 홍보를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자 과거로부터 내려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고 부족한 시간, 학업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중간고사 기간 및 그 직전 이주 동안은 시험 준비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을 방학기간까지 연장한다면 이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기간 중 식사, 간식과 판넬 및 피켓 재료 물품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볼펜이나 음료수 등을 답례품으로 주었다면 설문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역사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과, 특별히 지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역사체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8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예선 참가 동아리 명단

접수번호	학교명(소속)	동아리명	지역
1	태안고등학교	잡도리	충청남도
2	태안고등학교	역사동아리 try	충청남도
4	환일고등학교	우리문화지킴이	서울특별시
5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독도리	충청남도
7	장흥고등학교	아띠	전라남도
8	군산중앙고등학교	히스토리아	전라북도
9	인천청라고등학교	다물	인천광역시
10	이대부속고등학교	리케이온	서울특별시
12	양재고등학교	역사독서토론K	서울특별시
13	충암고등학교	역사지킴이	서울특별시
14	대전둔산중학교	계륵의난	대전광역시
15	남성여자고등학교	누리보듬	부산광역시
16	송덕고등학교	한앓	광주광역시
17	송덕고등학교	영락	광주광역시
18	동천고등학교	역사in부	부산광역시
19	평택여자고등학교	미스토리	경기도
20	세화고등학교	역사를사랑하시네요.	서울특별시
21	현일고등학교	사다함	경상북도
23	민족사관고등학교	KMLA History Magazine	강원도
24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바론하제	제주도
25	세종국제고등학교	Praeterita	세종특별자치시
26	민족사관고등학교	YICARUS	강원도
27	안계고등학교	다물	경상북도
28	광영여자고등학교	대한민국홍보부	서울특별시
29	성일고등학교	H.A.R.D.	경기도
30	인명여자고등학교	도원결의	인천광역시
31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독서토론부(아고라 1)	서울특별시
32	구미여자고등학교	나비	경상북도
33	청주대성고등학교	동화나라	충청북도
34	북일고등학교	북일어사대	충청남도
35	북일고등학교	삼정	충청남도
36	명진고등학교	오미자	광주광역시
37	설화고등학교	여일(역사동아리)	충청남도

38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독서토론부(아고라 2)	서울특별시
39	충남고등학교	청운령 역사	대전광역시
40	충남고등학교	CHHC	대전광역시
42	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	칠지도한	인천광역시
44	북일여자고등학교	알키알로	충청남도
45	대전노은고등학교	미래로	대전광역시
46	설화고등학교	사고몽치	충청남도
47	대신고등학교	HOT(History, Our Time)	경기도
48	대전제일고등학교	안다미로	대전광역시
49	천안중앙고등학교	청운	충청남도
50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온새미로	전라남도
52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사초	경기도
53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시트콤	제주도
54	원주여자고등학교	원화도	강원도
55	충남여자고등학교	DOHtory(도토리) 역사토론동아리	대전광역시
56	창원봉림고등학교	사모해	경상남도
57	대전송춘고등학교	역사사랑B	대전광역시
58	대전송춘고등학교	역사사랑A	대전광역시
61	순천매산고등학교	역사의이해와비판(사이비)	전라남도
62	고잔고등학교	안다미로	경기도
63	세원고등학교	꼬꼬지(한사모)	경기도
64	보문고등학교	나라사랑	대전광역시
65	불암고등학교	집현전	서울특별시
66	전북여자중학교	국사야 놀자-동북공정	전라북도
68	인천남동고등학교	배세토	인천광역시
69	상우고등학교	역사창고	경기도
71	울곡고등학교	돌아오라! 대한의 품으로	경기도
72	광주서석고등학교	역지사지(歷知史智)	광주광역시
73	백마중학교	이든혜음	경기도
74	백마중학교	물망초	경기도
75	울곡고등학교	IF 독도!	경기도
77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역사답사동아리 '한얼' 독도모듬	서울특별시
78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역사답사동아리 '한얼' 동북공정모듬	서울특별시
80	청주대성고등학교	참 ing, Charming!	충청북도
82	인천초은고등학교	두레	인천광역시
83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수레바퀴	경상북도

84	경북외국어고등학교	HAF	경상북도
85	김천고등학교	송삼동	경상북도
86	계산여자고등학교	역지사지 헤이와 특사	인천광역시
87	계산여자고등학교	역지사지 405	인천광역시
88	상일여자고등학교	한울	서울특별시
89	창원봉림고등학교	시나브로 독도	경상남도
90	인천논현고등학교	역동	인천광역시
91	공주여자고등학교	사고력(2)	충청남도
92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안경잡이	전라남도
94	탄벌중학교	FAS	경기도
95	울산동천고등학교	OHIO(오하이오)	울산광역시
96	평촌고등학교	시나브로	경기도
97	상산고등학교	해동연	대구광역시
98	동대전고등학교	Colloquium	대전광역시
99	역삼중학교	YS 역사 연구단	서울특별시
100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	히스틀	충청남도
101	상산고등학교	해동연 - 進	전라북도
102	판곡고등학교	가온길	경기도
107	완산고등학교	역사탐구반	전라북도
108	진주고등학교	H.O.P.E	경상남도
109	망포고등학교	반크	경기도
110	삼각산고등학교	대숲	서울특별시
111	휘문고등학교	아르스 노바	서울특별시
112	경북여자고등학교	正史랑	서울특별시
113	은행고등학교	비상	경기도
114	군산여자고등학교	온고지신1팀	전라북도
115	천안신당고등학교	온누리	충청남도
118	운중중학교	역동	경기도
119	천천고등학교	천천문화재지킴이	경기도
120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역동	인천광역시
121	군산여자고등학교	온고지신2팀	전라북도
122	대산고등학교	달솔	충청남도
124	원목고등학교	청사초롱	서울특별시
125	경화여자고등학교	태화사기	경기도
126	서강고등학교	반크(반드시)	광주광역시
127	여의도고등학교	너섬 역사동아리	서울특별시
128	오현고등학교	HighSTORY	제주도
129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역사사랑	충청북도
130	대전둔산중학교	신사의 품격	대전광역시
131	빛고을고등학교	역동	광주광역시

132	휘문고등학교	가라사니	서울특별시
133	경민고등학교	역사탐방반(DYNAMIC)	경기도
134	공주여자고등학교	사고력(1)	충청남도
135	세원고등학교	꼬꼬지(꾸마이)	경기도
137	영월고등학교	꿈틀	강원도
139	한일고등학교	HIFCO	충청남도
140	대덕고등학교	가온길	대전광역시
142	장림여자중학교	향토조사반'나미꿈'	부산광역시
143	설월여자고등학교	라운사회 GIS	광주광역시
145	김천고등학교	영위사학	경상북도
146	설월여자고등학교	라운사회-항아리	광주광역시
148	점촌고등학교	육두품	경상북도
149	대전갑천중학교	여우비	대전광역시
150	개성고등학교	B.G.M.	부산광역시
151	경기여자고등학교	한국문화부2	서울특별시
152	점촌고등학교	역모자	경상북도
154	경기여자고등학교	한국문화부1	서울특별시
156	개성고등학교	How Are You	부산광역시
157	대덕고등학교	萬古不朽 짓가락	대전광역시
160	혜화여자고등학교	불광불급(不狂不及)	부산광역시
161	청심국제고등학교	피스클럽	경기도
162	이대부속고등학교	아고라	서울특별시
163	안성고등학교	사림	경기도
164	부산국제고등학교	HRB	부산광역시
165	영천성남여자고등학교	콜별의 남자	경상북도
166	저동고등학교	다물연구회	경기도
167	부광여자고등학교	역사탐구반	인천광역시
168	광주여자고등학교	史랑	광주광역시
169	상일여자고등학교	play-S.O.D.A.(위하나)	서울특별시
170	영천성남여자고등학교	공존	경상북도
171	인천고잔고등학교	사서오경	인천광역시
172	양천고등학교	우리문화연구반	서울특별시
175	분당중앙고등학교	한울	경기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 장기적 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역사연구와 정책개발의 중심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북아시아 역사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역사대화와 교류협력의 허브

동북아시아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영을 위해서는 자국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나라의 역사도 존중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외의 역사연구자, 역사교육자, 역사관련 NGO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사대화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기반 조성

동북아시아의 역사에는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사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우호와 신뢰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일조(一助)할 것입니다.

활동 방향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
이웃나라의 한국관 대응과 연구
독도에 관한 학제적 연구
동해명칭의 국제적 확산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동아시아상' 모색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 지향
학술교류와 역사화해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 강화

청소년대상 사업 소개

1. 한·중·일 역사갈등, 우리가 해법을 제시한다! - 제7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 대상 : 전국 역사동아리(3~5인으로 구성, 지도교사 참여)
 - 주제 : 한·중·일 역사갈등 현안을 주제로 한 역사체험 활동
 - 참가방법 : 역사동아리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
 - 일정 : 참가 동아리 모집(3월), 예선(4~5월), 본선(15개팀 내외)
2. 만나고 싶었어요! - 역사 콘서트
 - 대상 : 청소년 및 관심 있는 시민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 일정 : 연4회(3월, 5월, 8월, 10월)
 - 참가방법 :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개별 신청
3. 동북아지역의 역사갈등, 이것이 궁금합니다! - 찾아가는 역사 강좌
 - 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 일정 : 상반기 및 하반기
 - 방법 : 역사 강좌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여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4. 시민대상 역사아카데미
 - 대상 : 청소년, 교사 및 연구자, 시민 등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전반
 - 일정 : 상반기(5~6월)
 - 방법 : 사전 신청자 또는 당일 신청자 참여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